朝鮮日報
夕刊 (金)曜日
本紙朝夕刊十二面

四十八時間以內로 英皇帝御退位決定

볼드윈首相、各黨領袖와協議

各皇族도重要協議

【倫敦三日發同盟】三日午後볼드윈首相은三日夜벅킹감宮에伺候 에드와드八世 陛下와 御協議하신後 十時五分退下直時下院議事堂에歸還하엿는데 歸還即時下院首相室에各黨領袖를 招致協議하엿스나 大勢는急速히御退位할수박게업스리라고觀測된다 但 볼드윈首相은 어디까지던지愼重을期하야 爲先各自治領代表와會見 四十八時間以內에 最後的決定에 到達하리라고 確聞한다

【倫敦三日發同盟】 에드와드八世陛下께옵서는 三日夜「마ー포로하우스」에 御母君메리皇太后陛下를 御訪問하압시고 御協議하압시엇다 但 御晚餐을함께 하시지아니하시고 벅킹감宮에 御歸還하압서엇다 皇弟욕크公殿下는 妃殿下를 御同伴하압시고 御母君陛下를御訪問 御晚餐을 共히하압신다음 여러가지로 御相議하압시엇다 다음同八時半 욕크公殿下는 벅킹감宮에皇帝를 御訪問하압시고 重要協議를하압시엿다 (寫眞은 英皇帝陛下)

【倫敦三日午後十時半發同盟至急報】 第一皇弟욕크 公殿下는 第二皇弟 그로스타ー公殿下 第三皇弟켄트公殿下를 招致하시고 重要協議를 하압시엿다

御結婚固執時는 內閣總辭職斷行

各紙、皇帝對심프손夫人關係一齊報道로 群衆、首相官邸에殺到

【倫敦三日發同盟】 볼드윈首相은 議會의 支持를 어더 에드와드八世와 심프손夫人과의 結婚에 反對를 言上하는 勞働黨 首領 아트리氏도 이를 支持하고잇는데 皇帝가 御結婚計畫을 放棄치안코는 總辭職의 決意를 固히하고 强硬態度를 取하고잇다 萬若 皇帝가 어데까지 御結婚計畫을 固執하실 境遇에는 下院反對黨의 第二黨 自由黨 首領 싱크리아氏에 對하야 組閣을 命하든지 又는 前閣僚 처칠 或은 目下 西印度諸島旅行中인 로이드조ー지氏를 至急 招喚하야 後繼內閣組織을 下命할수도잇는데 皇帝陛下御自身의 私生活의 幸福을 求하심에 關하야 依然御主張을 放棄치안흐나 皇帝로서의 最大責任에 關하야 深甚御自覺하신바잇다고한다 그리고 이러한政變에는이르지안흘模樣이다

【倫敦三日發同盟】 에드와드八世陛下와 심프손夫人과의 御親交에 關하야 從來 英國新聞은 全然 報道를 避하고잇엇든바 三日附倫敦各新聞은 一齊히 이 問題에 關한 報道를 揭載하엿다 따야흐로 倫敦到處에 이話題가 퍼저 政局에不安을 招來하고잇슴으로 다우닝街十番地 首相官邸前은 群衆이雲集하야 警官巡查가 出動整理에 當하고잇다

【倫敦三日發同盟】英國政府의皇帝御結婚에對하야 反對한데서 이러난政局不安으로 다우닝街十番地 首相官邸前은 黑山과가티群衆이모엿다 市場은 午前中은 거이停止되여섯스나 正午에이르러 平靜에回復되엿다

심프손夫人 退英中止

皇帝말삼에따러

【倫敦三日發同盟】問題의女性심프손夫人은 病이라稱하고 新聞記者와의會見一切를 拒否하고잇는데 友人들의말에依하면 皇帝와의御親交가 皇帝御一身에 不利益을招來한것을 衷心으로痛心하고잇는데 皇帝로부터「余一身의方針이 決定되기까지는 英國을떠나지말라」는말삼이 게시엿슴으로 國外退去를中止하고 御側을떠나지안키로 決意를 鞏固히하섯다한다 夫人의住宅칸빌란드테라미十六番附近一帶는 警官隊가嚴重警戒하고잇는데 一說에는 皇帝가 벨베데아離宮으로부터 벅킹감宮에御歸還하기 前後하야 夫人은 倫敦을 떠나 某所에 赴하엿는데 所持品은 三日午後 全部某所로 移送하엿다고 傳한다

自治領의人心不安 英帝國에大打擊

本國政府에對하야率直히强硬決意를表明

皇帝의御結婚을反對

【倫敦三日發同盟】 英帝國各自治領政廳은 외스트민스터 憲章에 保障된 權限에 基하야 直接에 드와드八世에 對하야 따음과가티 言上하얏다고한다

一、皇帝의 御身邊에 對하야米國新聞界는 여러가지 報道를 傳하고잇는데 英國政府는 何等反對聲明을 하지안키때문에 自治領은 人心不安을 極하고잇다

一、到下情勢가 依然繼續됨에잇서서는 英帝國은 重大打擊을 밧게될것이다

以上皇帝에對한御進言은比較的溫和하나 本國政府에對하야「率直」하게 强硬決意를 表明하야 各自治領은 皇帝御意中의 御結婚에 對하야는 形式의如何를 不問하고 찬을수업다고 警告하얏다고한다 目下 英本國政府는 倫敦駐剳代表를 通하야 各自治領政廳과 頻繁히連絡하고 英帝國破局阻止에 熱中하고잇다

議院制度調査會 混沌狀態陷入

議院法改正에關한幹事案에 政黨側委員反對續發

【東京電話同盟】 三日에 開催된 議院制度調査會總會는 爲先 一次田法制局長官으로부터 提示된 議院法改正에 關한 幹事案에 對하야 政黨側委員의 反對가 續發하야 劈頭부터 緊張된 場面을 展開하엿다 議會召集期 會期延長 常任委員會等의 諸問題에 對하야 議論이 百出하엿고 特히 議會召集期變更에 對하여는 九月召集說까지 再燃되엿다 總會의 審議는 遲遲不進하야 政府가 最初에 企圖한바와 如히 今議會에 召集期變更의 具體的改革을 提出할수잇슬는지 자못 疑問視되게되여 調査會의 成果에 對하야 벌서부터 悲觀的觀測이 잇게되엿다 即 召集期變更에 對하여는 이미 拾一月中旬案이 가장 實現性이 잇다하야 委員會에서 考慮硏究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同日總會에서 廣田首相은 九月召集說에 對하여도 別段反對치안는 旨를 述하고 陸軍大演習의 關係上 實現不可能한 九月說이 再次 組上에 이르게되엿다 따라 委員會는 右廣田首相의 言明에 基하야 召集期變更에 對하여는 單純히 十一月中旬說만에 拘泥치안코 九月說까지 審議하기로되엿다 이에 同調査會는 다시 새로운問題를 取扱하게되엿고 또 會期延長에 關하야 委員間의 意見은 거이 歸一되지못하야 混沌한狀態이다

吉田調查局長官辭任

【東京電話同盟】 吉田調査局長官은四日辭表를 提出하엿다 그리고後任決定까지 石渡調査官이 長官心得을命바덧다

內閣調査局長官 吉田 茂 依願免本官

內閣調査局調査官 石渡莊太郎 內閣調査局長官心得을命함

山東省鐵甲車隊 出動警戒配置

【靑島三日發同盟】 山東省政府主席 韓復榘氏는 靑島碇泊中의日本軍艦의 陸戰隊를 上陸식혓다는 報道에 接하야 크게놀래여 即時 鐵甲車隊에 出動을 命令하고 右鐵甲車隊는 三日夜靑島를 隔한 十五哩地點에 잇는城陽에 到着하고 警戒配置에 就하엿다

社說

無條約狀態

◇

明年의無條約狀態를 압두고 太平洋沿岸에서 가장 그利害關係를 깁히가지는 日米兩國에서는 그동안 서로 警戒하야마지아니하는바 兩國에서는 各各 明年度海軍豫算을 엄청나게느리는外에 二日의外電은 米國海軍側의 主力艦二隻의至急建造를 報하고 또今朝刊에는 海軍省의 無條約對策陣容整備를 傳하야왓다 압흐로도日米兩國間의海軍競爭은 今日의現象으로는 避치못할運命에 다다처잇거니와 大體 無條約狀態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

日英米의 太平洋沿岸의 利害關係에 影響을 미치는條約은 華府倫敦兩條約이다 그런데 이두條約이 今年 十二月末日로써 完全히 效力을 일케되다 이것이 곳말하는바 無條約狀態인데 이제 그經路를 簡單히說明하면 첫재 華府條約은 우에서말한바와가티 今年十二月末日限그效力을가지게되는데 條約國中 어떤나라이든지 即日英米佛伊中어떤한나라가 이期日을 압두기二個年前에 그廢棄를通告하고 二個年이 지나가면 그效力은 消滅되다 但消滅前一個年中에 다시 締約國全部가 會議를 열어 다시 條約에對하야 討議할수는잇게 되야잇다 그런데 昭和九年十二月二十五日 日本에서 이條約의廢棄를通告한後 다시 全條約國會議는 成立되야보지못하얏다

◇

다음은 倫敦條約인데 이條約도 亦是 今年末로 期限滿了다 그런데 이條約에는 廢棄의規定이업고 다만 期限前一年內에 會議를 再開한다는것만이 規定되야잇다 그래서 昨年十二月九日부터 今年봄까지 倫敦에 그會議를 열기는 햇스나 日本의主張인「共通最大限度」即 英米의五、五에 對하야 三으로해온것을 이번에는 同等으로하자는 平等的制限主義가 各條約國에게 容認되지못하야 結局日本은 一月十五日 드듸여 倫敦條約에서 脫退한것은 아직 우리記憶에 새롭다 그래서 이條約까지 今年末로 完全히 效力을 일케되매 日本에 關한 海軍條約은 아주업서지고 말엇다 日本이 脫退한後 英米佛三國에서 新海軍條約을 締結하기는 하얏스나 그것은 別로制限的인것이아니매 크게問題될것이업거니와 日本이 이條約에서 脫退한理由를 못놋코한마듸로 말하면 萬若 日本이 英米에 比하야 海軍을 적게가지는때는 自國의利權을 그나라들에게 빼앗기기 쉽다는것이다 그럼으로 日本으로서는 到底히 比率主義에 그대로 服從할수업는 것이다 (李東園)

强硬意見을傳達코 日中交涉中止!

排日、關稅、航空、朝鮮人問題等의方針을宣言

三日夜突然第八次會談

【南京三日發同盟】 全然停頓狀態에 陷한日中交涉은 三日夕刻에 突然中國側의 要請으로第八次會談을 行하기로되야 午後七時半부터外交部會議室에서 川越大使 須磨總領事 淸水書記官、中國側張群外交部長 高宗武亞洲司長出席下에 開會하고 約三時間에 亘하야交涉을 行하엿다 日本側은 九月十五日交涉開始以來이미 二個月餘나消費하엿슴에도 不拘하고中國側의 無誠意한遷延策으로그대로 放任할時에는何時解決될는지 漠然함으로 川越大使는 會談劈頭부터 日本側의 確乎한 態度를 表明하야 成都事件을 筆頭로 排日取締問題、關稅問題、航空連絡問題、朝鮮人問題等 어떠 어나程度까지中國側에 誠意를 表한 問題에對하야 爲先解決치못하게한後 此等 解決치못한問題에對하여는今後事務的手續을 行케하기로 決定한다는 日本側의 不動한方針을 宣言한다음 北海、漢口、上海等 日本人被害事件은 全然抗日政策의 當然한 結果로서 其責任은 國民政府에 잇슴으로 急速解決方法을 講究하기 바란다고 最後的要求하엿다 日本側의 强硬態度에 張群氏는 右에對한 辯解를 試하고 明四日 須磨總領事 高司長間에 다시會談을 行할것을 要請하고 經濟問題에는 一言도 抵觸치안코 日本側의 一方的宣言으로 終始하야 會談을終了하엿다 日本側은 이것으로서 日中交涉은 一段落된것이라고認定하고 今後에는 右에關한 事務的手續이 남어잇다 하는바 一個月半에亘한 波瀾曲折을 거듭한 日中交涉도 마침내 今日의 歷史的會談으로 大團圓을 짓게되엿다

콤뮤니케發表

【南京三日發同盟】三日 午後七時半부터 行한 川越大使 張群外交部長 第八次會談終了後 日本大使館當局은 左의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一、今年九月二十四日 成都에서 發生한 日本人殺害事件은 帝國政府에서 日中兩國의 平和를 確立하고 나아가 東洋平和와 安定과를 確立하기爲하야 折衝하고 國交調整을 企圖하야 國民政府에서도 同樣의 希望이잇다는것을 認知하엿고 또 兩國의 國民的輿論도 漸次 此를要望하게된 際 不幸히도 突然 發生된것으로 日本朝野의 關心에 反하야 日中國交에 甚히 惡暗影을 던지게되엿다

一、元來在成都帝國總領事館에 對하여는 開設以來 何等問題가 업섯는바 今年七月下旬 南京中央通信社가 同總領事館再開反對를 報道한 以來 一般의 反抗氣勢가 昂騰되여 漸次 各方面에도 波及되엇는데 一方國民政府에서는 當者邦交敦睦令을 公布하고 排日取締를 屢次 言明한바잇섯다 成都總領事館再開反對策動 取締에 對하여는 特히 帝國駐華官憲으로부터 屢次 嚴重注意를 喚起한바 그때마다 國民政府는 取締를 言明하면서 國民政府와 四川省當局은 何等有效한 措置를 講究치안코 排日氣勢를 그대로 放任하엿기때문에 마침내 成都事件을 發生케한것이다 如斯히 國民政府가 소위 屢次言明한 바를 不履行하야 不誠意를 暴露한 結果를 招來한것은 日中國交調整을 希望하는者에 對하여는 實로 痛恨不堪이다

一、따라 國民政府는 이에 對하야 反省自覺하고 誠意를 披瀝하야 全面的措置를 講究함은 그 當然한 責任이다 그리고 單純히 事件自體의 急速解決을 圖하는데 끗치지안코 類似事件의 續發함에 對하여는 兩國國交가 더욱 阻害되고 또 雙方의 國民的感情이 차칫 疎隔될 危險을 豫防하고 나아가 積極的으로 國交調整改善을 圖함이 緊要하다 帝國政府는 國民政府에 對하야 成都事件의 解決方法을 要求하는 同時에 國民의 對日感情 是正 和親策에 對하야 國民政府에서 自發的으로 排日運動을 根絶케하고 또 一切의 排日策動의 根絶에 對하야 其責에 任하기를 要求하는 一方 國民政府가 成都事件으로 國交調整及 改善의 將來에 及한 重大影響을 一掃하기爲하야 이機會에 重大決意로써 國交調整을 實現할 것이라고 大局的見地에서 請한바잇섯다

一、右에關한 折衝은 九月八日 須磨總領事 張群外交部長間의 豫備的會談開始以來 川越大使 張群部長間에 正式會談七回 須磨總領事와 張群部長或은 高宗武亞洲司長間에 二十數回에 亘하야 行하엿고 또日本側의 請은 妥當且 國交調整上必須事項이라는것을 委曲을다하야 說明한바잇섯다 그리고 這間 上海 北海 漢口等에서 帝國海軍軍人 領事館 警察署員及 商民에 對한 殺傷事件이 續發하야 被害者가 數名에 及하엿고 自然國內輿論이 甚히 硬化되엿스나 帝國政府는 國交調整의 高所에서 隱忍을 거듭하고 國論鎭靜에 努力하야 專혀 國民政府의 誠意를 披瀝하고 自發的解決을 圖하기를 期待하야 屢次의 會談으로 國交調整에 關한 主要事項에 對하여는 大體로 意見이 接近되엿스나 最近에 이르러 國民政府外交當局은 俄然 本折衝과 全然 關係업는 綏遠問題等을 口實로 하야 ……것으로 擬用하야 會談의結末을 表示하야 거이 何等 進展을 보지못하게되엿다

一、그런데 本折衝開始以來 三個月에 瀕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如斯한 狀態로 推移하야 徒然히 時日을 遷延함은 日中國交調整에 何等利益이 업슬뿐더러 兩國間의 疑惑을 깁게하고 輿論의 動向을 그릇되게하야 도리혀 이것을 利用하려하는者에 乘할機會를 提供할 虞慮가 잇슴으로 川越大使는 十二月三日張群外交部長과 會見하고 從來行하든 會議의 經緯를 述하야 이미 雙方의 意見이 合致된 諸事項에 對하야는 一一히 條約을 加하야 會談의 結末을 明白히한後 結末된 諸事項에 關하야 事務的手續을 行하기로되고

一、諸事件은 成都事件을 爲始하야 其他國交調整에 關한 諸問題의 大部分은 國民政府가 一一히 그 實行을 할 性質의것임에 鑑하야 帝國政府는 國民政府가 誠意로써 그實行에 當할것을 期待하고 이에 依하야 日中國交調整에 一步를 進할것을 確信하는것이다

一、本交涉開始以來 北海、上海、漢口等에서 續發된 日本人被害事件에 對하야는 昨二日夜談判을開始하엿는데 今日다시 急速解決에 對하야 外交部에 對하야 다시 嚴重한 注意를 喚起하는터이다

黃郛氏逝去

【上海三日發同盟】肝臟病惡化하야 危篤에陷入하엿든 中國政界親日派의 巨頭黃郛氏는 三日午後二時半 佛租界의 自邸에서逝去하엿다 享年五十四 正式發喪은 國民政府와 協議後今夜深更或은 四日朝發表되는데 邸內는 吊問客으로 非常한 混雜을呈하고잇다 黃郛氏는 浙江省出生 一九三三年日中關係가 險惡化하야 推選되야 政院駐平政務整理委員會委員長이되고 北平에서 事態拾收에 努力하다가 一九三五年 北平을 떠나 莫干山의 別邸와 上海의 自邸에서 靜養中이엿다 最近 蔣介石氏로부터 內政部長就任을 要望바덧스나 遂最後까지 應치안엇는데 日中問題에對하야는 恒常蔣介石氏의 有力한顧問으로 問題가생길때마다 重要進言을하고 日中關係正常化를爲하야 努力하고잇든 親日派의巨頭이다

人事·集會

▲方應謨氏(本社社長)關北地方旅行中 四日午後二時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 歸任

▲金炯元氏(本社編輯局長)同上

▲方建斗氏(本社販賣部長)同上

八面鋒

御獨身의 英皇帝 某有夫女와의 戀愛關係로 畢境 帝位를 退讓하시기로 決意하섯다고。

◇

帝位는 尊嚴、皇帝의 尊嚴으로써 一個의 平民有夫女를 男便과 離婚시키고 皇后로 모서드리다함은 大英帝國의 權威上 不可라고 볼드윈司歟가 御自重을 要請한때문。

◇

그中에도 타임스紙가 新聞들의 風說流布를 非難하고 皇帝로하야금 國民들에게 安心할만한 聲明을 要求한것은 一層 退位 決意를 促進한듯。

◇

아무리 眞正이오、言論의自由잇는 나라라 할지라도 皇帝의 私生活을 評하는 自由를 他國에서 보기 드물거니와、

◇

帝位를 鴻毛가티 역이고 戀愛에 殉한다는것도 他國에서 想像못할 일。

◇

그야말로「戀愛에는 帝王도 黃金도 權力도 名譽도 업다」는 戀愛至上主義者들이 喝采할 일이로군。

京城 金 金銀地金賣買所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本(2)〇〇七四番

軍用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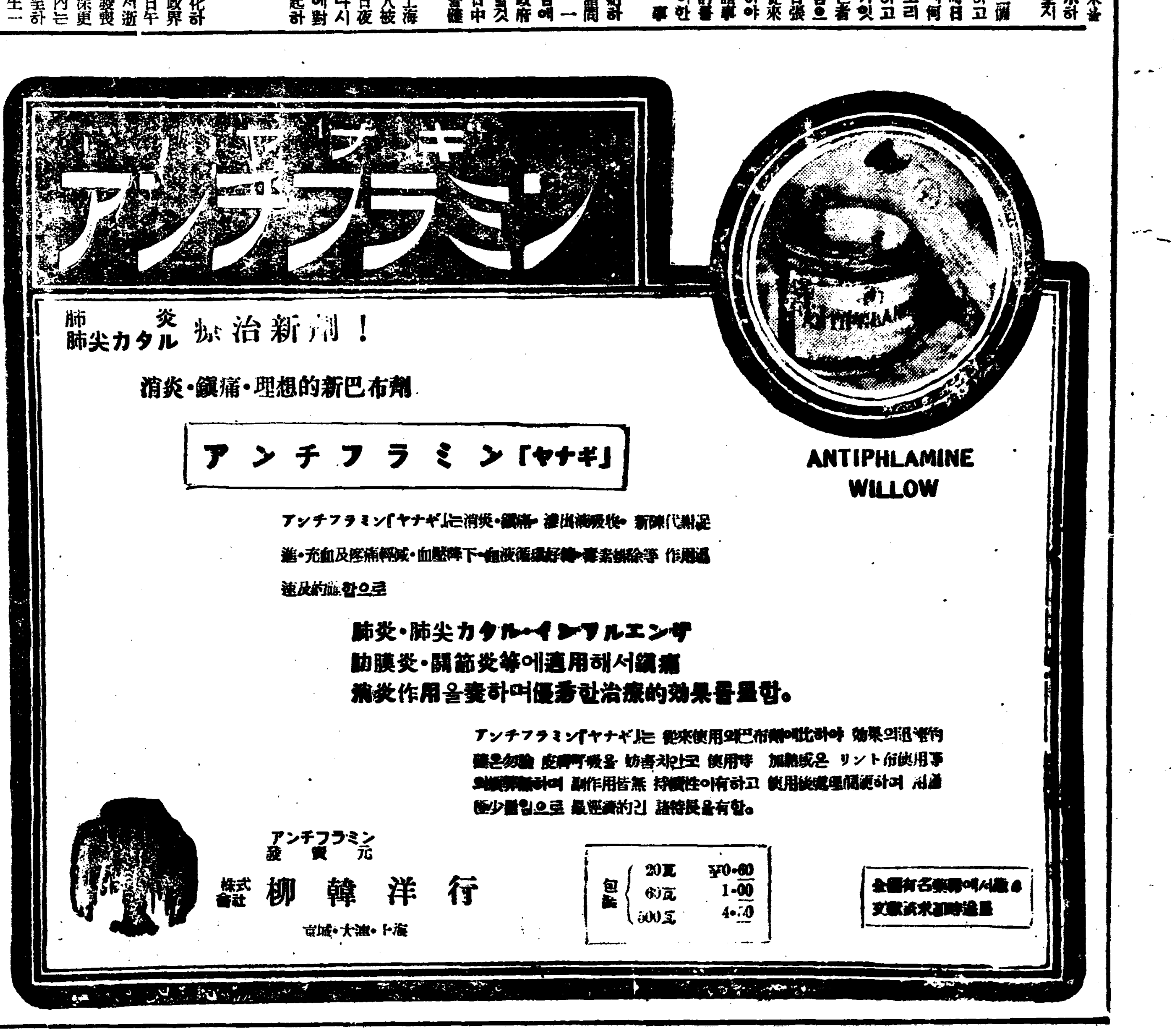
故陸軍軍醫總監松本先生處方 肺病、肋膜、胃腸病으로 오래된 속병에 별약을 다 써도 낫지 안는이는 最後的決心으로 한번服用하시오 定價 十圓、五圓、参圓 製藥所 京城 東大門藥房

京城 測量技術講習所夜學開始

新規募集 開講 昭和十一年十二月十五日 昭和十一年十二月十六日 學則要二錢切手

京城府蓮建町一九五 電話光二七八九番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數學、註記、製圖、伸縮法、實習、其他



德、體兩方面을 智育敎育上位에

敎員養成、入學試驗、敎科書에德體를强調

各道學務課長會議서討議決定

『敎育方針의 九十度轉換』

학무국에서는 교육방침을 보통교육중심주의로부터 실업교육중심주의로전화하는동시에 다시 재래의 지육(智育)편중주의로부터 덕육(德育)과 체육에 치중하도록 근본적 교육방침을고치게하게되야 이번에 열리엇든각도학무과장회의에서도 중요히토의한결과 이것을 결정하엿다한다

그런데 이것의 실행방법으로는 지덕체의 세방면을 똑가티 존중하되 오히려 덕육이나 체육에 치중하게하야 지식의 주입(注入)보다 인격의 완성과개인의 충분한 수양을 도모케하고저함것으로 그구체적 방책으로는

一、교원의 양성에잇서서 우선 덕육과체육에 치중하야 교원자신의 인격적감화로 학생생도에게 미치게한다 따라서 학과의 담임과전문여하를 막론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격도야(陶冶)에 전력을 다하게한다

一、중등학교이상전문대학까지의 시험제도를개혁하야 학술편중주의를 고치어 체격검사와상식과인격의 고사를 학과와똑가치 중요시하되각기재학학교의평시 학과성적과 인물평정도체격검사와 이학시험등시의 정고세가지를 꼭가티 평정하야 입학자를 결정하는방법을취하야 써 체육과덕육의 발달을 전교육령역으로 중하야 주력케할것

一、학교교과서를 개편하야더욱과체육의 완성을 교재에만히 너흘.

一、학교체육의 통제를단행하야 순전한 스포-츠주의로부터 체육을중하야 인격의도야를 도모케할것

등으로 이것과아울러 학교위생시설의 충실과 체육지도에대한 시설을 급속히확충할터이라한다

今日汚物掃除令 施行規則을發布

實施는明年十月부터

오물(汚物)소제령 시행규측을 오일부로 총독부에서 발표하엿다 이것은 지난봄에발표된 조선오물소제령에대한 세측을 도회지의 오물소제에대하야 소제방법과 소제의무의 구분(區分)과 수수료와 사용료의징수 또 감독과 제재등에관한규정인데 이것은 명년시월일일부터 시행된다

◇……눈보래치는 서울의 거리……◇

線路건느려는 人夫負傷……

사일 아침여덟시사십분경 경성역(京城驛)제일홈(第一홈) 소화물계(小荷物係)압 철로길에서 때마침 룡산역(龍山驛)을떠난 봉천행(奉天行)렬차──운전수 고강승마(古江勝馬)(三八)──가 전긔지점에 다다랏슬때 남대문시장융풍상회(隆豐商會)인부(씨명조사중)가 빈구루마를끌고 차길을 건너가려다가 열차바퀴에 구루마가 치이는바람에 압이마와 오른편손에 부상을당하엿다 그리하야 곳룡산철도병원(龍山鐵道病院)에 입원중급치료중이며 생명에는 별반이상이업다 원인은 피해자가열차의제지를듯지안코 건너가려다가 그만그리케된모양이다

吳昌億에게 上告棄却判決

소화구년칠월하순 만주국통화현(通化縣)에서 조선혁명군 일백오십여명과함께 일본군병세명을습격하야 그중한명을 죽이고 그가가젓든 긔관총과 탄환을탈한혐의로 일이십에서 징역팔년판결을밧고 고등법원에 상고하엿든 평북 초산군초산면성서동(楚山郡楚山面城西洞)오창억(吳昌億)(三一)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피고사건언도공판은 사일오전 열한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장 촌전(村田)검사 관여아래 열리여 재판장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이 내리엿다

昨夜元町에大火 工場等六戶全燒

原因은失火·損害七萬圓假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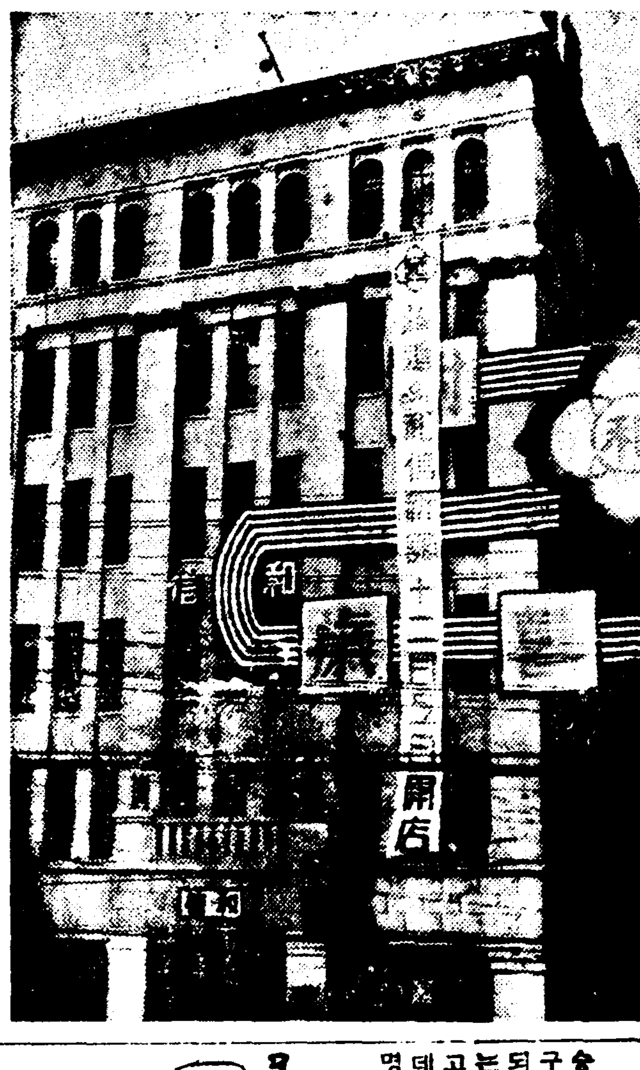
올겨울에 드러서 제일 큰불이 가튼밤 시내에 일어낫다── 지난 사일밤 오후 여덟시십오분쯤되어 원정(元町)일정목백이십일번지 진유(眞鍮)공장 김룡재(金龍在)씨의 집에서 불이일어나서 삽시간에 그공장전부를 태워버리고 거친불시길은다시 이웃집 삼전영송(森田榮松)씨의 정미소 진도민부(津島敏夫)씨의 철공장, 교본가차랑(橋本嘉次郞)씨의 자동차공장, 입강창장(入江倉藏)씨의 전긔용접소(電氣溶接所) 소천장병위(少川庄兵衛)씨의 집들과 밋정재성(鄭在成)씨의 주물공장등에 옴겨붓터서 도합 여섯집에 열한채를 몽땅 태워버린다음 가튼밤 아홉시삼십분에 룡산서관내소방서원 전부는물론 칠십구련대 소방병 한소대등의 진력으로 겨우 불을잡앗다

원인은 김룡재씨의 주물공장에서 납물을 피우려고 휘발유를 끼언진것이 잘못되여마침내 이가튼 큰불을 일으키고만것으로 손해는칠만원 가량이라한다 그리고자세한것은 방금룡산서에서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하는중인데 일반은 요지음가티 바람사나운 불//씨즌//에 각별히 불단속함이 긴요할것이다.

(사진은 불탄자리)

鐵板窃盜 무리─사인

철판을훔친 무리─사인 네전동정(?)삼구번지철공 김갑록(金甲祿)(二○)은 한석호(韓錫浩)(二○)외 가명(假名)라는자와공모하야 지난그믐날과 이튼날밤두차례에 전농정경성농업학교 신축장창고에 들어가 도단오십매를 훔처내여 회긔정(回基町)팔십번지 홍석범(洪錫範)에게 한장에 륙십오전식에 파라먹은것이 판명되여 소관동대문서에서 엄중한 취조를밧고 잇는데 여죄가 상당히잇는 모양이다 그리고 공범자 한은도주하엿슴으로 그서에서는 지금그를 엄탐중이라고한다



鍾路四街의新雄觀

百貨[illegible]의新築建物

防火壁과非常階段等設備

종로이정목 화신(和信)백화점의 점포로 중대건물이 바로 화신연쇄부처서 작년오월오일부터 공사에 착수하엿던중 드디여 일년칠개월반인 사일에 준공되엿다 종로거리에서는 제일노픈륙층축타일의 건물이소사난것으로 불관의총연평 팔백이십구평이고 부속가옥의 연평이 일백오십팔평 그총공비가 이십만원이라고한다 오일부터 화신백화점이 그곳에서 영업을시작할터이라고하는데 특히이번건물은 방화(防火)에 중점을두어 방화사다리와 비상계단등을 설비하엿스며 특히 지하매장등이 특색을보히고잇다 (사진은 화신백화점새집)

路上에狂女屍

사흘날오후세시반쯤되여 부외 숭인면하월곡리(崇仁面下月谷里)이구십번지압길에는 나히스물전후되여보히는 미친녀자하나이 죽어잇는것을 지나가든사람이 발견하고 소관동대문서에 계출하엿는데 검시한결과 정신병자로 판명되엿다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揚子江流域의 高氣壓은 勢力이弱하야 七六八耗를示하고 점차로東으로 移動하려고하며 거기로부터高氣壓은北東에向하야 점점 減하야지고잇다 北海道附近에는 두출긔와 弱한低氣壓이잇다 北滿洲와 關東及 南朝鮮은 흐리면이며 裏日本은 處處에비가나리며 東北地方及 北海道에는 눈(雪)이내리는곳이잇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개엿다흐렷다하며 明日도 갯고 좀떠듯하야 질模樣이다 그리고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零度三
同 最低 零下七度○
今朝最低 零下七度三
今日正午 五度

悲運의 敎會學校問題

對策委員會組織코 廢校問題를協議

明五日에는關係各校學父兄大會를開催

【光州】루보=전라남북각지에잇는 장로교관계인 남녀중등학교와 초등학교등 십칠학교를 명춘부터 폐교하기로 되야 다방으로보하엿거니와 이비보를드른일반사회인사는 물론동교교직원들은 폐우나우려하야 각계를망라하여미순학교문제대책강구회(미순學校問題對策講究會)라는것을 조직하고맹렬히 활동을 계속하고잇다는데 전긔 강구회위원들은 삼일오후칠시부터 부내숭일학교(崇一學校)에서 예비회합을하고오는오일오후두시부터 광주부양림정(光州府楊林町)에잇는 오원긔념각(吳元紀念閣)에서 전긔관계학교 학부형대회를 개최하게되엿다는데 대책강구회의 위원은 십칠인인바 다음과갓다한다

李敎弼 金耐國 梁應喬 金周煥 崔興琮 李得洙 洪午哲 金厚根 崔基英 白宗翰 徐漢權 梁泰承 崔炳均 金興默 孫宗珍 金勝禧 崔泳旭

衆人環視下에 面刀自殺未遂劇

放蕩한中國人의愚策

방탕한끗에 중국인이면도로 자살하는척하다가 중상을입엇다 부내서소문정(西小門町)이십삼번지 중국인왕씨(王氏)집에류하는 중국인문규산(門奎山)(三)은 삼일오후 여덟시삼십분쯤에 주인에게 하숙료지사원이전을 청구당하엿는데 최근수입 삼십여원을 전부주색에 탕비하야 평소에는 무일푼이라 서양면도로배를 세번이나가르는척하다가 둘재번과 셋재번에는 드디어복마에이르든 상처를짓게되엿다 설마하고 여메서보든왕모(王某)하모(夏某)등이 그제서야 황급히 부근 전중환병원(田中丸病院)에 떠메어갓는데 생명은 건질것갓다고한다

城津農組事件送局

【城津】성진농민조합(城津農民組合)제삼차관계로 검거되엇든 중한 취조를바더오든 농조재건사건은 지난일일에 오후네시사십분차에 청진검사국으로 백삼십명중팔십사명만 송국되엿다한다

街頭의破落戶 十四名一網捕盡

龍山署의年末警戒收穫物

연말경계 그물에 걸려든 열네명으로된 큰 떼도적들── 사흔날오후네시쯤되여 부내 룡산서정구(井口)형사가 삼판통(三坂通)부근을 비비대들고 잇든 쓰레기통뒤지기 김영식(金榮植)(二八)이라는소년을 붓잡어다가 문초해본바 이소년의 동무인 열네명으로된 놀라울만한 도적들이 떼를 지여가지고 밤낫으로 서울의 거리 거리를 헤매이면서 소매치기、 벼이치 노리기등을 일삼고 잇다는 단서를 잡고형사대는 긴장되여 그밤을 새워가면서 삼판통、길야정(吉野町)청엽정(靑葉町)、 봉래정(蓬萊町)일대를 샤삿치뒤저서 단장으로지목되는 수원(水原)태생 최정인(崔鼎仁)(二○)등 열네명을 혹은 쓰레기통속에서 혹은 옷속에서 붓잡어다가 모다 류치시켯는데 문초에 따라서는 도적질한 금품이 막대하게 드러날것으로보인다

不正藥種商取締

남의免許狀빌녀堂堂히營業

鍾路署에서摘發處罰

시내에는 약제사와 약종상、또는 한약국의 영업을하는곳에서 자긔가 영업면허장은 가지지도 안흔사람이 남의영업장을 명의만 빌려노코 당당하게 영업을하고잇는곳이 만흔모양이어서 시내 종로서위생계에서는 이것을 취체키위하야 얼마전부터 관내의 전긔 각영업자들을 내사하기시작하엿든바 그러한 부당한 영업자가 속속드러나게되엿다 사일에도 시내 관훈정(寬勳町)일백사십삼번지최영함(崔泳涵)(六七)이라는사람은 무자격자로서 남의약제사명의만걸고 삼성사(三省社)라는 약재영업을 하고잇던것이 발각되엿스며 송현정(松峴町)이십칠번지 오대환(吳大煥)이라는 사람은 허가업시 약종상을하고잇든것이 발각되여 모두종로서에 소환되여 엄중한취조를바덧는바 발각된그들은 단호처벌할터이라고하며 계속하야 철저히 이러한부당영업자를조사 처분할터이라고한다

江界別河에도 電信電話開通

평북강계군별하(江界郡別河)에도 오는륙일부터 전신 전화가개통되기로되엿다 그곳은 만포선(滿浦線)철도공사로 말미암아 점점 발전되여가는터이므로 체신국에서는 그곳우편소에 얼마전부터 전신전화선의 공사를하여오든중 요지음에 준공되엿다 한다

妙齡處女性遊戲事件 說諭程度로釋放

斷罪하기에는情狀可憐타고 今後에는嚴重團束

지난이일 서대문서고등계에서착수한 불량이세들의 도색유희(桃色遊戲)사건은 예긔하엿든바와가티 검거의손이 부내모사립중등학교이학년생으로 동서관내화천정(和泉町)에거주하는 박승봉(朴承奉)(一九)─가명─외한명에게까지갓다 동서에서는 이사건에관계되는 소년소녀가 대부분 남녀중등학교에 학적을둔학생들이며 보호자의사회적지위를고려하야 삼일밤까지 신중한 취조를계속하고잇섯는데 그들의 일이 사회도덕상 용서할수업는사실이나 단죄(斷罪)할정도까지는 진전되여잇지안헛슴으로 삼일밤부형을불러서 엄중한단속을명하야 돌려보내다 이세기말적퇴폐현상을 미연에방지하게된동서에서는 사건의성질상특히 그들소년소녀의장래를 고려하야 학교당국과는 일체교섭이 업섯스며 금후이가튼방면에는특히 단속을굿게하리라고한다

新發賣

最新發明 淋疾에는 トリコノール 百發百中

煩悶에서幸福으로!!

淋疾은根治困難症이기때문에 여기에對한藥도 千種百目이외다 不幸히도 이病에 걸인分들은 어느藥을써야 効果를 엇을가하고 精神을 바로잡지 못할지경에잇슬것이며 따라서 가장適當하고 特効잇는 藥을알려 드리기에도 여간 頭痛꺼리가 안입니다 더욱이 慢性이되면 남모르난煩悶과苦痛으로 지나게됨이 안이寒心한일이올시까요

이에本社에서 가장高貴殺菌劑이오 理想的인 淋疾根治新藥「トリコノール」를 創製하여 長久한時日에 追試를거듭한結果 確實한 自信을가지고 杏林界에 進出하야 百發百中의 讚賞을밧고 잇슴니다

今般에 特히新發賣紀念으로 左記에依하야 特賣하오니 勿失好期!

記

期限 自十二月十日 至十二月末日

先着一萬人限 二日分品을進呈하오니 試用後無効면 返金함니다 (買上高二圓에對하야)

【特徵】

一、本劑는浸達性이 豐富함으로 깁히배인病菌을 迅速히 滅殺시혀 體外에排出함

一、本劑는 胃腸을害하는 일이 絶對로無함

一、本劑는 殺菌力强大、利尿作用卓越、消炎性이 確實함으로 아모리 慢性이라도 短期에治癒함

一、本劑로서 治癒되면 絶對로再發되지안슴니다

【適應症】 急性淋疾、慢性淋疾 女子淋疾、淋毒性帶下症

【藥價】 三〇錠 一、〇〇 五〇錠 [illegible] 德用 五、〇〇

京城府內需町
製造元 太陽製藥社
電光一八四九番 振替京城二五六七九番

實로人氣最高絶頂!!實物本位

洋靴 一足에 三圓八十錢均一!

百八號 二個年 半佛式 最新流行品으로 斷然本社의 犧牲的奉仕製品

山羊革 ボックス革 表子 底牛革

耐久力…… 百四號 純佛式 八十五號橫ボタン式

五大特長 原料優良 製品巧妙 外樣美麗 耐久絶對 新流線型

紳士諸君은 써有利以上 各地注文 最高殺到

八十六號 山トンビ 現代的青年紳士의 適當한價格下에 提供

◎올림픽號 スケート靴 競技用 練習用 特價 三圓八十錢也

▲陸上制覇孫南君이잡엇스니

▲氷上制覇도우리손에──

全朝鮮各地滑氷俱樂部御指定

ロングスケート各種定價表

	A	B	C
◎ムンライト	八、○○	七、○○	四、○○
◎キング	八、○○	六、○○	五、○○
◎ナショナル	一○、○○	七、○○	三、八○
◎白狗號	六、○○	四、○○	三、五○

此外에도 오스포-ド·レコート號·柏來多數具備 一九四○年第十二回世界올림픽大會氷上豪傑을目的하는流線型平安式スケート靴를 ─그리고 또スケー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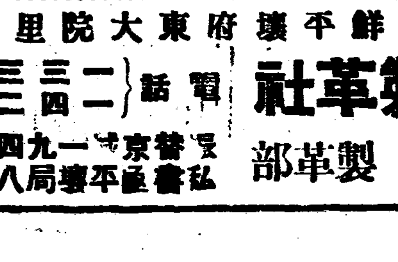
各種毛皮ナメシ及加工

鞣(ナメシ)料 虎皮 熊皮 海豹 山羊 狸 獺 狐皮加工 狸皮加工 犬皮加工 加工料

洋靴一足注文에 高級HHH크림一個式無代進呈

表裏毛革 防寒靴 本社新案特製品 特價四圓八十錢均一

雪中氷上에서도 溫暖健康保持 裏內部純毛로하엿기에



型錄請求次第無代進呈

朝鮮平壤府東大院里
平安製革社 洋靴部 製革部
電話 一三三一·二四二〇番 振替京城一九四三番 私書函平壤局八十七番

◎注文方法─葉書에注文數를記入하야注文하시면代金引換으로送付함

第一期工事完成

新館開店!!

十二月五日부터

粗品進呈 新館擴張謝恩大賣出 全店

景品附 歲暮贈答用品大賣出 全店

「良品、廉價」를主義로하옵고오로지「謝恩、奉仕」를專念하는弊店新館一部開店劈頭의巨彈！

◉優良한贈答用最適品을具備하옵고大景品附大賣出을開催하옵는「여러분의和信」으로混雜키前에下命하심을伏願하나이다

景品種目

- 特等 白米八叺、或은 洋家具一揃（或은 朝鮮家具一揃）
- 壹等 다이야入白金指環 或은 赤狐首卷
- 貳等 和信景品券(拾圓)或은鏡臺、或은掛時計（或은純銀盃(壹附)）
- 參等 毛메리야스上下一組 或은 責（鐵火爐 或은 衣服次）
- 以下五等外지空籤은無함

景品券進呈方法

一、每參圓買上에景品引換券一枚를進呈함
　但金銀製品은每拾圓買上에景品券一枚를進呈함

一、每五拾錢買上에景品引換券一枚를進呈함
　但金銀製品은每壹圓買上에景品補助券一枚를進呈함

一、景品補助券六枚로景品引換券一枚와交換함
　但金銀製品은補助券十枚로景品引換券一枚와交換함

○廣木、砂糖、洗濯石鹼、其他特價品에는景品券을進呈치아니함

各階賣出

니트라이機織實演・新柄賣出	호ーㄹ
니트라이圖案展覽會	〃
防縮防虫파ー스毛메리야스大賣出	新三階
兩面메리야스一千枚特賣會	〃
皮手袋別誂注文引受	〃
粗品附二重織毛메리야스大賣出	〃
粗品附空氣枕、列車枕賣出	〃
防虫毛布特價賣出	〃
粗品附電熱器賣出	東四階
流行衣裳次陳列	新二階
夜具部新設、旣成夜具賣出	〃
便利한家庭廚房用品陳列	東二階
粗品附洋傘筒賣出	東四階
粗品附金齒프라ー드賣出	新一階
景品附라이온齒磨、齒刷子賣出	新一階
友仙멘벨三特價賣出	新二階
粗品附風鳥化粧品宣傳賣出	新一階
婦人小兒用毛糸製品特價賣出	東三階
新柄쇼ー르陳列會	〃
毛皮쇼ー르陳列會	〃
鱈魚皮핸드백宣傳賣出	〃
스케ー트・스케ー트靴賣出	新五階
補助運動靴・地下足袋賣出	新七階
新製組合文具賣出	新四階
文化刺繡・佛蘭西人形・工藝品實演賣出	新二階
朝鮮刺繡實演賣出	新二階
올림픽카메라宣傳賣出(粗品附)	新四階
婦人兒童用新製防寒洋裝品賣出	東三階
男女兒오ー바兒童服賣出	東三階
仕立券附와이샤쓰生地賣出	新三階
味之美宣傳賣出	地階
饅頭製造實演賣出	地階
和信萬年筆宣傳賣出	新四階
台灣飴宣傳賣出	新一階
優良毛絲特價賣出	新三階
澤庵・奈良漬特價賣出	地階
化粧品組合賣出	新一階
日蘇까소린곤로宣傳賣出	東二階
新型兒童服別誂引受	東三階
부독크쵸코레ー트賣出	新一階
알마이트製品宣傳賣出	東二階
昭和十二年度日誌・카렌다賣出	新四階
格安鏡臺賣出	東四階
印入타올注文引受	新三階
新春用모ー닝注文引受	新四階
明治製菓製品賣出	新一階
共地핸드백附오ー바ー注文引受	東三階
하ー프메이드洋服宣傳賣出	新四階
兒童用乘物陳列	新五階
洋服地周衣次賣出	新四階

雜貨特別大廉賣市 六階 호ーㄹ

只今까지絕對로類例업는優良品을記錄的大廉價로提供하오니勿失此機하옵소서

提供品

綿綢布木　家庭用品　洋裝品　玩具
洋品雜貨　食料品　文房具　食器

京城 和信

代表電話光二八〇〇番

"로동하지안흔자는 먹지를 마라!"
「파라파이」의 신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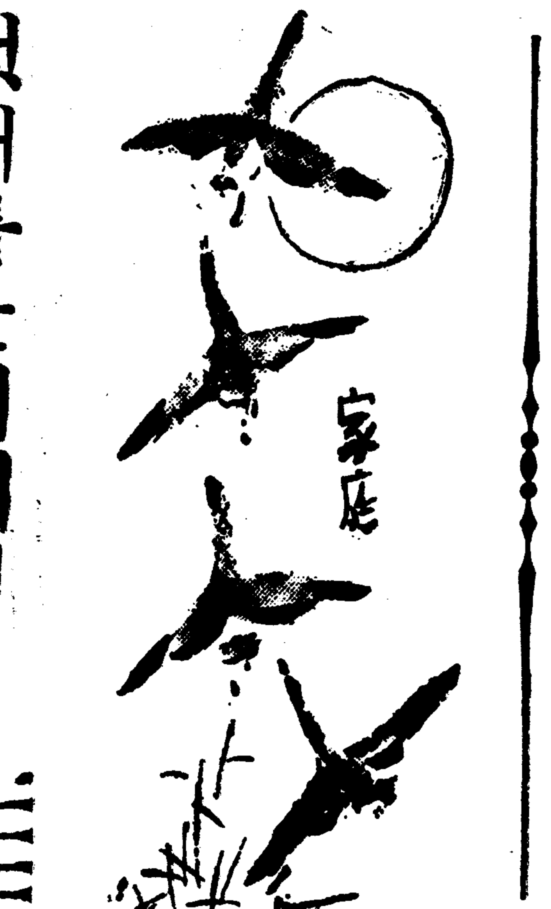
「로동하지안는 자는 먹지를말다」라는 말은 이리치·레-닌이 남겨놓흔 철고의 명언이지만 현대의 세게각국에서는 로동을하랴야 일을 주지안하서 못하고 실업의기근에 헤메이는 사람이 무수한때 남아메리카「볼리비아」와「파라파이」두나라에서는 일은 산데미처럼 잇서도 로동하랴는 사람이 업서서 활레이고 잇습니다

그러하야「파라파이」대통령 라파엘·프랑코 씨는 뜨디어 단호한처치로써 국내에잇는 서반어 상의남자는 절대로로동하지안흐면 안될로동강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야 통과를보게되엿습니다 이와동시에「뽀리비아」에서도 이법안이 통과되엿습니다 조선가튼곳에잇는 룸펜제씨가 이말을 듯는다면 좋은소식이나 그나라에서는 이것이 대단한 공포의 법안으로 비난밧고잇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놀이지대를개척하얏슴으로 놀고먹겟다는고절한정신의 소유자들을 다려다가 근로를 계조시킬 작정이라고합니다 아모래케나 고르지못한 세상이기는합니다 (파라파이공사우선)

자양되는사과집

사과껍질을 버리고 속살만먹는것이 무슨점잔이놀음이나 실상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껍질만이 안이라 속심까지 한처서 남비가튼것에 끄리면 붉으스름한집(汁)이나옵니다 이것은 향기가조코 영양가치가 만습니다 이것을빼집으로 걸러서 설탕을너가지고 마시면 속이 따워지고 목에 대단히조습니다 실상 사과는 속살보다도 껍질이 더맛도잇고 몸에 리로운것입니다



家庭

첫애를난어머니 이만것은알아둘일
애기기르기가나키보다어렵다
젓먹일때안경을벗자

애기나이도 그러케 쉬운 노릇은 아니겟지오 그보담 애기기르기가 몃갑절러 어렵습니다 사실로 어머니가 한 애기를 기르자면 피땀이 빠집니다 더구나 어더보좋어머니들로서야 애기 기르는 법을알수가잇습니까? 조금만이상해도 그저마음이 급하고 동이덜아서 그러케 다는 애만도 십년감수나 될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을 위하야 애가자의 주의를 여쭈어드리렵니다 보아 두시엇다가 요긴하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우는애기

밤에 잿구 우는 애기는신경질이 유전되는 관계도만흐니까 얼굴몸에가튼것을시키어서 몸을 튼튼케 하는것이 제일좃습니다 그러나 곡류비아대학에서 연구한결과로는 푸른전등이 썩신효하다니까 그것을 시험해보시는 것도 해롭지안할것입니다

이가나는애기

여섯달쯤되야서부터 이가나기 시작하는데 그맘때는침을 듯시 흘리고 또 무엇을 깰물어 뜻습니다 이가나는라고 열도 좀 잇고설사도 좀하니 그것은 그다지 염려할것이 업습니다 그런때 이가 나는대는칼슘이 아조 필요하니까 어머니가 칼슘이 든 음식물을 만히 자서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가 다난 뒤에 는 보통 음식물을 먹이는것이 조흐니 차차 젓뗄 준비를 하시는것이 조습니다

잠을자는애기

어린애기네는 잠자는것이 큰 일입니다 되도록 재워야합니다 그러나 홀지안한때는 창문을 열어제친 방에서 재우십시요 그리고 감긔들게다고 미리부터 겁을 내어 이것 저것 무겁게 더퍼서 재우지마십시요 그런 애기는 도리어 저항력이 와하야 저서 조금만 찬데나 가도 꼿 감긔가 듭니다 그뿐더러 아모리 조흔것을 먹고 키도 얼골빗이 조치를 못합니다 벼개는 낫게 비우는것이 조코 자는 근처에 위험한것을 노하두지 마는것이 좃습니다 그러고 잘때 입까를 깨끗이 씻어주어야합니다 입까에서 젓내가나면 파리나 개미가튼것이 드러덤비게됩니다 또 시끌거튼데서 쥐나 팽이가 흔히 자는 애기를 무는 것도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젓을먹일경우

젓을 먹을 때 애기네는 어머니의 눈을 빤히 처다본는 버릇이 잇습니다 근시의 어머니가 근시안경을 쓰고 늘 젓을 먹이다가는 그 버슨로 인하야 애기의 시력이 고만 결단이 납니다 젓을 먹일 경우는 안경을 벗고 먹이십시요 원시나 난시도 그럿케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의학
머리털이빠저

問 실연전부터 머리털이빠집니다 요사이온 매심합니다 (開城 一讀者)

答 머리털이 빠지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잇서 무엇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원형탈모증(圓形脫毛症)인가합니다。 전염되는때도 잇는고로 환자가쓰는빗、벼개、모자、수건등을 절연시키고 달리하는것이조흐며 환자자신도 벼개에 신문을 깔고자고 매일 새것으로 바꾸는것이조습니다。 그러고 승강(昇汞)一、〇에 알콜(酒精)二〇〇、〇을 너은약을매일 두어번씩 바르십시요。 그리고 필수잇스면 태양등 자외선을 쪼이면 효과가 만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별로필요치 안을듯합니다만은 아비산제나 홀몬제를 맛는것도 조습니다。 요새 새로운 치료법이 잇지만은 어렵 전문의사를 찻지 안으면 어렵습니다。 (大學病院 皮膚泌尿科)

홍문출혈

問 이십삼세의 남자이온대 작년겨울부터 대변볼때에 피가섞겨나오며 홍문이 대단히 아픔니다 대변이 연하면 아모럿치도 아늠으나 구드면 더욱 심하며 홍문은 손가락을 칼로 베인거갓습니다 아모조록 치료법을 가르켜주시오(平南大同 一學生)

答 내치혜(內痔核)이것갓습니다 홍문것트로 혹이 보이지안으나 홍문안으로 혹이잇는것입니다 대변이 구더서 내치혜의혈관이 터저서 출혈이 생김으로 늘 대변을 연하게하면 출혈이 끗칠것입니다 늘 관장(灌腸)을 하시든지 또는 좌약(坐藥)을넛으시면 좃습니다 근본적으로치료하시랴면 근치수술을 밧으면 간단하게 이주일이면 완치될것입니다 (大學病院松井外科 文仁柱)

냄새안나고·국물안흐르는 변또반찬몃가지 (2)

朝鮮料理研究所 洪善杓

二、배추장아찌
배추속대를저려서 김치속을잘해서 벗테서오일간 말리여물끄가 조금도업거든 다시소금으로 간을미처서 참기름에지지면 변또반찬에 적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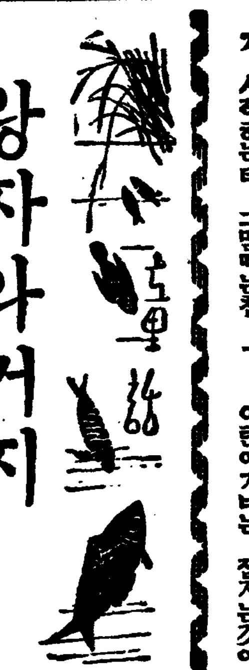
三、호도장아찌
호도를삶다가 항아리에너코왜간장을 호도에잠기게붓고종회로통하야 오륙개월동안 (삼월부터) 땅속에 무더두엇다가 꺼내여 먹으면 변또반찬으로좃습니다

四、점복장아찌
빗싸기는 아니되겟습니다만은 올해는 감시하야 딱개에삼원만주면 승만한대 이것을사다가 물에 흠신불린후에 다시 하로쯤 벗혀말리여 부득부득하거든 잘개쓰러 간장에 조리면 한두개라도 변또반찬은 넉넉합니다

五、게알젓
게알젓은 바다근처의알로 젓을 담근것인데 다른젓갈과가려 냄새도 나지안코 색갈도 연황색인까닭으로 보기에도 조코 꽉짜면 물도업고 갈도파하 비차지안습니다

엄청난안악네

「요하네스부루그」에 「베취나랜드」라는곳에 목장주인의 성질이 남자이상으로 대담해서 어느날밤 그가 살고잇는 목장근처에서 사자의 우름소리가 나므로 부인은한손에 초불을든채뛰어나가 총을겨누어 사자두마리를 다잡어왓답니다



왕자와거지 (37)

마-크·토웬 作 崔秉和 譯

로인은 소년을붙기까히 데불고가서 몸을더욱게 해주고 도 벗거진상처를 씻서준후 저녁준비를 시작하엿습니다

두사람은 유쾌한마음으로 저녁밥을 먹엇습니다 로인은 현관(玄關)아페서 기도를올린후에 국왕을 엽방으로 대불고가드니 어머니가티 침대에다가 누이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엿습니다.

「너는 정말 국왕이냐?」하고무럿습니다

「그러타。」늙고국왕은 죽던목소리로 대답을 하엿습니다

「어느나라국왕이냐」

「영국나라다」

「영국? 그러면 헨리-는 죽엇지?」

「그러타.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말을듣자 노인은 맛작마른 눈을 처들면서

「나를 직업는 거지중으로 만들어논것은 너의애비란것은 잘 몰낫구나」하고 목쉰소리로 무렷지만 국왕은 잠이들어서 아모대답이 업섯습니다

「벌서잠이들엇구나」늙하더니 로인은 무엇을 생각햇든지 창칼을 꺼내서는 숫돌에다가열심히 갈엇습니다. 얼마뒤에 칼날을 만저보고는

「점점날이 서가는구나」늙하고 혼자중얼거리엇습니다 이러케 일을하면서 머리속에서는여러가지생각이떠올낫습니다.

「저놈 애비놈이 내 신세를 망처 노아겟다. 지금이야말로 그 원한을 풀 때가 온것이다.」하고 도칼을 갈고 잇섯습니다. 그밤이 퍽 기퍼서 사면이 고요하여질때 로인은 가다가다 떠러진 색기를 주서가지고 드러와서는 국왕의 발목과 팔목을 단단히 결박을 지엇습니다. 그리고 남은줄로는 얼굴 가슴 허리를 칭칭 감어서 매노앗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몸이 고달퍼서 로인이 자기몸을 떠 주물느는듯 하여도 도모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잇섯습니다.

二十一、헨돈의목소리

칼날 타오르는 불비쳐 얼굴은 무서운 형상을 해 가지고 소년을 노려보고 잇섯습니다. 로인은 칼을 또 갈기 시작하엿습니다. 그광경은 흡사히 거미줄에 걸려서 떠둥거리고잇는 가엽슨 나비를 싱긋궁친 거미가노려보고잇는거와가텃습니다.

그때 갑작이 소년의눈이 떠저습니다。 소년은 노인의 손에잇는 칼을보고는 벌벌 떨엇습니다。 그것을본로인은 퍽기뿐얼골에 악마와가튼우슴을웃드니 칼가든손을 멈추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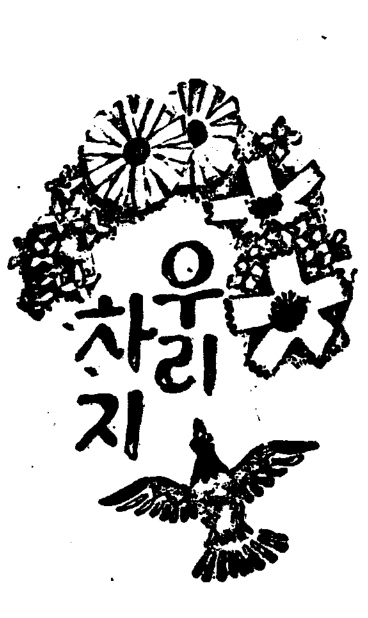
「헨리-팔세(八世)의 아들아 마즈막염불을해라。」하고 말하엿습니다。 소년은결박당한 몸을꿈틀거리면서열리지안는입속에서 괴로운소리를내는것을 로인은 염블소리로알어듯고

「자-한번만더불러랑 이세상마즈막염불을불러랑。」 소년의전신은 부들부들떨리고 얼골은흙비츠로 변해버렷습니다。 그리고 이리떼굴저리떼굴 굴르면서 미친사람가티 날뛰엇스나 어떠케 해 기술을 끈놓수가업섯습니다 귀신피가튼 로인은 그것을 바라보고는 껄껄 우섯습니다.

소년은 숨이차서 헐덕어리면서 모든것을 단념한듯이 조용히잇섯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설새업시 쏟으로 흘러떠러젓습니다。 그러는동안에 날은훤히밝어왓습니다 로인은때가 가까워왓다는듯이 벌떡일어나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벌서 날이밝어온다。 일변동안 이러케 자미잇는날이 계속햇스면 조흔데 이놈아 정울터러헌논놈의자식아。 눈을 감고잇거랑. 보고잇스면 놀난귀신이된다。」하고 나중에는 뭐라고중얼거리는지 알아드를수가업섯습니다。

아- 그때 밧게서 가느다란사람의목소리가 들려왓습니다。



"우 박"

누깔사탕만콤식한
우박이 쏘다진다。
대추을 쏘는거가태
길가든 사림들은
모두 추녀미트로
뛰여든다。
요건래처음가는큰우박
아버지는 배추바지
절딴난다고 걱정을
하신다。

(글쓴사람 황용구)

유-모어小說
姓女씨 (三)

金熊超 作·畵

晩學一年生(4)

몽백군은 바로집으로 가라다가 무슨생각이 낫든지 돈의동 큰형네집에를 들렷습니다. 큰형님은 아버니 어머니를 모시고 잇습니다.

한서울안에 살면서 떠구나친형제간이면서도 줄처럼 서로찻는일이업는터인데 오늘은 한달만에 큰마음먹고 아우가 들린셈입니다。

몽백군은 드러서는길로 사랑방에를 드러갓습니다。 면색이사랑이지 기실은 영감마나님 두분이 거처하시는 별스당입니다 지금도 갈투를쓰고게신 영감님은 아들의 얼골을 빤히 처다보드니 결박을생각도 아니하고 여떼안진 마나님에게 고개를 돌렷습니다。

「저 젊은이는 누구요?」

「아이는 왜떼청을 부려! 몽백이지 누구야」

마나님은 영감에게 핀잔을주면서 아들을 보고

「안자라」하면서 자기엽자리를 손으로 슥 쓸렷습니다。

영감님이 어떠케 딱정떼지 몽백군은 그아메니서자면 슬슬기는판입니다。

「내 둘째놈이란말이지? 이놀이 훤하고、 풍채가 늠름하고、 엇잿든 장한사람인데」

영감님은 이러케 한마듸해노코 끌통대에다가 썬당배를꾹꾹 다저 너엇습니다 이야기는 단단히 길모양이지요。

「너이자식 네형은고사하고 애비어미가 여기잇는데 달장간되도록 코빼이를 안뵈이니 장한사람은 의레그러는거냐?」

「얘 왜 자주와서 안뵙니。 일에매인몸이나바쁘기야 하겟지만」

마나님은 연송 아들을 짝고돌면서 조케 타일르십니다。

「몸일이 만허서 자연、-그럿습니다」

몽백군은 억지로 몹구멍에친 울티기고 알는놈의소리로 변명을 햇습니다。

「네가 바쁜것은 나도짐안다。 나재는 회사일보랴 밤에는술집드나들랴 한시인들 여가가잇겟니。 내가 몸이성하다면 네어머니를 압두서라도 네에게 자주 문안을드리겟다만 그럿치를 못하니까 답답하지안흐냥。 어끄제 네어머니는 청요리찾수육인가 뭔가를 잡숫는데 이가 업스니까 마구생켜버렷구나。 그래서 여러번고생을 하구속다시랴고스다 아니햇스로 도라갓다면 네가그걸알엇겟니」

영감님이 어떠케 빤히 처다보는지 몽백군은 아모말도못하고 그만눈을 아래로깔고 마렷습니다。

「그래 공부해서 왓습리는 안무하고-무슨 소편사로 왓겟수냐。 말해라어듸」

몽백군은 인제쏫낫다시피 몽백군은 겨우 생기가 도는것 가탓습니다。 안지라는 말도업는데 무릅을 꾸렷습지요。

「저-제차를 학교에 보내주하고 아버니께 의론하려 왓습니다」

「뭐? 학교에?」

영감님은 혀가 떡구버렷는지 그다음 말을못햇습니다。

풍치로 고생하실때만큼이나상혈이되엿습니다。 눈시동자가 돌지를 못하는지 눈을빤히 뜬채 한동안 깜자거리지도못햇습니다

「시대가 시대니만치 암만생각해봐도 공부를 시켜야되겟서요 한자를알면 한자를 아느니만치 저한테는 보배가 될게아닙니까」

몽백군은 아주 대담하게 육박하는 셈입니다。 면해전가르면 영감님이 몽백군을 웅켜잡고 즉구선수처럼 팔쨔팔쨔 뒤어 졸은 방안을 뒤엄허 노앗슬겝니다。 그러나 나히가 시키는노릇이라지금에는 그럴 기력이업습니다。

「그래 학교는 어느학교?」

「우선 야학속성과에너어 이삼년안으로 보통학교졸업정도가되게할작정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요?……그때봐야알겟서요」

「보구안보구가잇니 중학교에를 보내야지 그런데 대관절 야학은 어느야학에 보낼작정이냐?」

「인사동에잇는 녀자학원바게더 잇습니까」

「그럼 네마음대로하려므나」

「그런데 학비는 아버니께서어떠케……」

「알、 아범되어서、 그야 돈로이진」

영감님의대답이 넘부시원스럼워 몽백군은 왼일인지 머리끗이 주뼛주뼛햇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몽백군이 밧싹하고잇는상실혼과 한쪽을타서 영감님은 밤안간 전광석화적으로 잇괴법렬하드렷습니다。

「이자식 뭐 어쩌구어째!」

옷을기만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끗까지 깨무러버릴의기엿습니다

今番은卸問屋으로서의特價로一品式이라도보내드립니다
中古洋服類革靴の大安賣

◎鐵道省拂下品 黑ラシャ服詰襟上下(純毛中古裏付)
一等品一着ニ付 三圓六十錢
本品ハ鐵道省ノ拂下中古品ニテ純毛黑色丈夫向品デス

◎鐵道省拂下品 紺ラシャ服詰襟上下(純毛中古裏付)
特等品一着ニ付 四圓三十錢

◎鐵道省拂下品 冬小倉服詰襟上下(ネル裏付 霜色)
一等品一着ニ付 二圓二十錢
本品ハ鐵道省拂下中古品ニテ厚地小倉地丈夫向品

◎鐵道省拂下品 單小倉服詰襟(裏ナシ 霜色)
一等品一着ニ付 一圓二十錢

◎米國製中古背廣折襟上着(純毛)
本品ハ米國ヨリ直輸入ノ中古品ニテ純毛新柄舶來生地丈夫向
A品……二圓六十錢
B品……二圓三十錢

◎米國製中古チヨッキ
A品一枚ニ付 七十五錢
B品一枚ニ付 六十五錢
純毛新柄舶來生地 スコッチ。カルセ ホームス。ラシヤ メルトン

◎米國製改造ズボン(新柄純毛品)
本品ハ米國製直輸入中古品ノ改造ズボンニテ純毛縞スコッチホームス。カルセ。
A品 二圓二十錢
B品 一圓九十錢

◎軍隊拂下 改造編上靴(中古改造品)
本品ハ軍隊拂下ノ中古編上靴ヲ改造加工シ新半張革調進鋲ヲ打込ミ堅牢無比實用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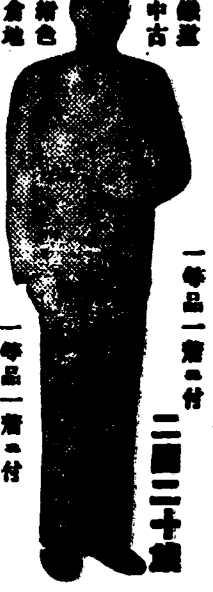
陸軍改造 編上靴(茶利革)
A品一足 二圓三十錢
特品一足 二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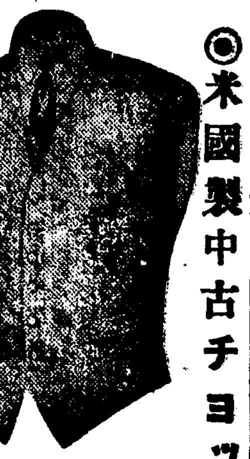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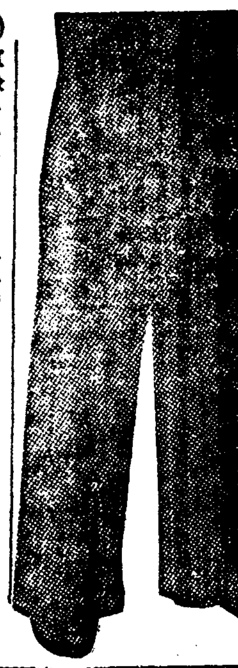
海軍拂下 陸戰隊用 黑革編上靴
A品 二圓六十錢
特品 二圓八十錢

◎海軍拂下 水兵黑革短靴
本品ハ海軍ノ拂下水兵短靴ヲ改造加工シタル中古品ニテ底ハ新半張革ヲ打チ丈夫向品

黑總革水兵短靴
A品 二圓十錢
B品 一圓九十錢

葉書로註文하시면代金引換小包로보내드립니다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大二一九番 振替名古屋二一五一一番



美と魅力の近代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東京一流마네킨孃의來演
最新化粧法의實演을公開합니다
꼭一次來臨하십시오

新時代の衿白粉
白粉下つ ぬらい
ブルース
ホルモン配合

姉妹品(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新築開店大賣出
期間 十二月五日부터十五日까지
京城 和信化粧品部
各種 風鳥化粧料

學藝館筆記　新羅의官位(上)

(二)　蒼匡

新羅의官位는 三國史記에依하면 儒理王 九年에官을設하야 十七等을두되 一은伊伐飡、二는伊尺飡、三은迊飡、四는波珍飡、五는大阿飡、六은阿飡、七은一吉飡、八은沙飡、九는級伐飡、十은大奈麻、十一은奈麻、十二는大舍、十三은小舍、十四는吉士、十五는大烏、十六은小烏、十七은造位라고하엿고 同史職官志에依하면 儒理王十七等의 位名에對한 異名의別稱을 아울러傳하엿는데 一、伊伐飡은 伊罰干 于伐飡 角干 角粲 舒發翰 舒弗邯이라 稱하기도하고 二、伊尺飡은 伊飡이라고도하고 三、迊飡은 迊判或은 蘇判이라고도하고

四、波珍飡은 海干或은破彌干이라고도하고 五、大阿飡은(此以下는 眞骨을 限한것이엇다) 六、阿飡은 阿尺干或은阿粲이라고도하고 七、一吉飡은 乙吉干이라고도하고 八、沙飡은 薩飡或은沙咄干이라고도하고 九、級伐飡은 級飡或은及伏干이라고도하고 十、大奈麻는 大奈末이라고도하고 十一、奈麻는 奈末이라고도하고 十二、大舍는 韓舍라고도하고 十三、舍知는 小舍라고도하고 十四、吉士는 稽知或은吉次라고도하고

十五、大烏는 大烏知라고도하고 十六、小烏는 小烏知라고도하고 十七、造位는 先沮知라고도한다 하엿스며 또 新羅本紀에 依하면 文武王十四年에 外官의 位號를 定하엿는데 그것을 京官의 位에 比하면 一은 嶽干이니 一吉飡에 二는 述干이니 沙飡에 三은 高干이니 級飡에 四는 貴干이니 大奈麻에 五는 選干이니 奈麻에 六은 上干이니 大舍에 七은 干이니(干字의上에 一字가 잇는 모양인데 마 下字인듯하다) 舍知에 八은 一伐이니 吉次에 九는 彼日이니 小烏에 十은 阿尺이니 先沮知에 各各 相當하게 定하엿다。여기에 엇든 疑問되는것은 外位第八의 次에는 반드시 內位第十五大烏에 相當한것이 잇섯슬것인데 그것이 漏落되엿[illegible]

[illegible]

批評文學의樹立과그方法

(六)　韓植

그自身의일홈이될것가트면『특히 自己의蜜水로써 適當한것』을探求한다고 볼수가잇다。이와가티 하야 過去로부터 이때까지의 쓸룽한批評은 단지 作者의 傀儡라든가作品의

一追一 從來와는 唯一의目的으로하는것이 아니라 어듸까지 作家와 作品에依據하면서 批評家의 藝術的想像과強烈한 個性을通過한 人間性의闡明으로 새로운 作品을 再構成하는데 까지에 이르럿스니 그는 꼿다른 文學作品과 조곰도 다름이업는 創作的 表現을 다하야、批評의 文學을 形成하는것이다。또 이와가튼 地位에 선、即 創作과 同一한 노피까지에 올라선 때의 批評文으로서만이、批評의 眞實한 機能을 다할수가 잇스며 眞正한 批評의 本質을 發揮할수가 잇는 것이다。

그리하야 批評文學을 樹立하고저 하는 우리의 새로운 途程에 잇서서는 必然的으로 이때까지의 批評的 形態와 그方法을 再檢討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批評의 獨自性을 警覺함에는 다시 印象主義 批評에 對한 深甚한 考慮가 잇지 안흐면안될것이며 그에따라서또 鑑賞等에 對한再認識이잇지안흐면안될것이나 그에對한論究는다음機會에밀우고 여긔서는다만이때가지의文藝史上에잇서서 印象主義批評이얼마만한 進步的役割을다하엿다는것과 過去의 客觀的印象主義批評으로부터 만흔

一攝一 取가잇지안흐면안될 것을말하여둔다。우리는過去의 文藝批評史上에잇서서 印象主義批評이 素朴한 批評보담으로 오른 것지 안타는 興味잇는事實을 注意할必要가잇지안흔가 생각한다。

初期의批評은 作品의感想과印象을그대로出發하며 享受、鑑賞을 通過하야評價 判斷에까지이르는 [illegible] 批評家自身의 眞摯한體驗的 個性과 [illegible] 가추려면 가추할수록 더욱光輝스러워질것으로대답할것이다。또作品으로부터의 [illegible] 印象에 依한分析은 그自體의 [illegible] 主觀과 [illegible]

가지고 다면적하는 모양으로自 性을還通過하면할수록 더욱효용할 것은定한理致이다 그러나 여긔서말하는主觀 印象도結局은 世界觀、認識等에 依하야 統一되것의一斷面임은 틀림업스며 또作品의內面的 分析은結局、社會的 分析의 論理的或은 論理的規準에서 버서나서는 不完成한것바게못될것도 分明한일이다。最近의쏘베트、로시아에잇서서도 批評의 獨立的地位와 그發展의方法에關하야、여러가지로 論議되고잇지만은、結局에는 批評에잇서서의

一美一 學的課題와 社會的課題의統一이라는 要求가 前面에推出되고 잇는것을 볼수가잇다『베스파ー롭』은 그의 批評論文中에잇서서、『스위프트』가 아테네에 잇서서의 批評家의發生을 諷刺한語句『批評家는一種의 職工가튼것이엇다。批評家는 自己의『아이롱』을 自己의 博學으로『아이롱』질하며批評家의 유ー모아까지도 그『아이롱』가티 무겁게 생각되는 것을 그들의 敵에게까지 肯定시킨다』를 引用하면서 이때까지의批評이 그獨立性을 理解못하고 다만作品의 뒤만따르면서自己의博學으로 학포ー즈만을만드는 批評家를 非難한다。作家와批評家사이에 距離만을 誇張하며 或은藝術作品에 感動하는 精神을일코 充分히 理解못하면서 다만原理의 復習이나 作家의課題만을 探索함으로써 滿足하는따위의批評家의缺點을 指摘하는것이엇다 그리하야 藝術的 鑑賞 印象 主觀等의問題를 다시吟味하며 豐富한感性으로써 享受、鑑賞等의美學的課題에對한 緊急한缺陷을 是正하는바가 잇섯는것이다。이러한指摘은 또오늘날의우리批評家들에게도 妥當한것이라고밋는다。그러나 여긔서다시금

一注一 意할것은 主觀個性 印象과 神이되고 感性이先天的神秘가되야 또現代와가튼 歷史的事情미테서 思想 科學等이 無限한彼方으로 撤退되는때에『神聖한스틀』의著者에리옷트가『우리들이 알지못할때에 或은充分히알지못할때에 思想대신에 情緖가代置한다』라는 意味에서 그러한것이 强調되며 問題되여서는안된다는것이다。

노ー벨文學授賞者 유ー진·오닐 斷想

—그生涯와藝術에關하야—

(四)　金珖燮

오닐ー은 亞米利加演劇을 代表하는 最初의劇作家이자 最初의世界的名聲을 가젓슴에도 그는 劇場이라는것을 즐기지안햇다。劇作家가 劇場의魅力을 가지지안는다는것은 오닐ー에게나 限된일일가? 『나는 비록 내가 어들수잇는 劇本을 一一히 다 읽으면서도 … 나는 내마음가운데서 떠올를 거진 가지안는다 演出을 할수잇는 까닭에 劇場에 가지안는다。나는 나의劇도 볼수잇다。그러므로 어찌보 을 보러 가지도안는다 나의劇이 上演되기始作한以後 單세番밧게 보힌일이업다。여기에對한理由는 내가 實際 劇場에서 자랏고 演技에對한技術을 너무도 잘알고잇는까닭이다。정말로 어떠한 靈感을 通하지안는限 演技라는것은 나와 劇本 두사이에서만 가질수잇는것이다』

이것은 詩人的要素를 多分히 가지고잇고 또한劇에서 詩를차즈랴는 오닐ー의 一面이자 그의 代表劇에 對하는 오닐ー의 不滿이며 또한藝術的良心을 버린『몬테크리스트伯』에 對한 反動이 內在的心理化한 것이라고 볼수잇다。

『毛人猿』『皇帝죤ー즈』『偉大한神브라운』等에잇서서 表面하며 特히『皇帝죤ー즈』에잇서서 近代劇的觀念까지도 一蹴하고 獨白을 劇의重要한要素로 삼엇스며『偉大한神브라운』에서는 假面으로 劇의性格을象徵하는等 새로운 表現과構成을 꾀하야 오닐ー의獨特한 劇의尖端을세웟다。

이제 오닐의作品이 가지는바 內容을 觀察해보면 이미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全體가오닐ー이 體驗에서 把握된 人間性의 表白이다。이人間性은 그가把握한 世界以外에서 온것은 거짓업다하여도 過言이아니다。그는 그것을 探究하고 表現하기爲하야 船夫나農夫나 黑人의 習慣을 取하엿다。그들은 現代의 文化에서 가장 追害를바드며 그리면서도 現代文化에 蹂躪되지안흔 人間性의 素朴한 性情을 가장 代表的으로 띄고잇는까닭이다。『偉大한神브라운』『喪服의에레크트라』가튼 데篇을 빼여노흐면 모두다 그러한 社會의 밋層에서 움지기는 人物들이다。그러나 오닐ー은 그人物들이 가지는 生活自體를 그린것은 아니다。그生活은 하나의 揷話에不過한다。오히려 오닐ー은 그生活의內面에 부다친다。다시말하면 그가取材한 許多한水夫生活은 그生活이 表現의目的이아니어고 그속에潛在한 暗黑한人間性의探究가目的이엇다。이 人間性 乃至 潛在意識 或은 人間의本能을 차저보랴는데서 오닐ー의作品은 愛慾을 主題로 한것이 大部分이다。프로이드學에 依하지안더라도 愛慾은 모든文學의 오랜歷史를通하야 中心題目으로한것만큼 人間의主되는 本能이다。文化가 아모리 發達하엿다 하더라도 이本能에는 變化가 그다지업다。特히 이런意味에 局限시켜서 한말은 안이겟지만 오닐은 이러케 말하엿다。

『스치나』한러이

『藝術批判』은嚴禁 『藝術鑑賞』만許可

地下의하이네에게 또다시나리는鐵槌

『나치스』黨은 一九三三年一月政權을 獲得以後로 逐次『以黨治國』을 實現해서 統制를 完成하고잇는것은 다 아는바와 갓거니와 다시 그鐵手를 藝術界에까지 펴처서『하인릿히·하이네』의 亞流인『猶太的』藝術批評을 一切禁止하기로 하엿다고한다。『겟스베르스』宣傳啓蒙相은 지난 二十七日『批評統制』의 法令을發布하엿는데 그要旨는 다음과갓다。

一、今後는 所謂藝術批評을 禁止하고 다만 藝術鑑賞만을 許可한다。各新聞社에는『藝術記者』(아ー트·에되터ー)를 두는데 藝術記者는 三十歲以上으로서 充分한 知識經驗이잇다는것을 證明하는同時에 宣傳省의 特別許可를 맛기로한 當該藝術部門에잇서서

二、今後는匿名의 藝術批評을禁止함。批評을할때는반드시筆者의姓名을明記할것

이러한法令을 發布한겟스베르스宣傳啓蒙相은 다음과가티 말하고잇다。

『批評家는 藝術에 對해서 謙遜한 從僕이지 絶對로審判官이어서는 안된다。잘못된批評은 實로『하이네』에서부터 成長해서 아직도 그惡影響의 밋치는바가 그칠줄을 모르고잇다。그럼으로 宣傳省은 今後『나치스』的 思考方法과心情을 所有한特定의 人士에게만 限하야 藝術批評을 許可하기로 決定하엿다』云云。

(奮興오듸하이네의 頭上에 나리는『나치스』의 鐵槌)

漢詩募集

題……松

押……松

限 十二月十日

(薄謝進呈)

漢詩

題 重陽

押 香

桐岡 考選

三等之四

京城嘉會町一四五番地 癸亭 李承禹

節物驚心易感傷
百年過半遇重陽
攬衣楓葉錦非煖
浮酒菊英金亦香
吹帽自歎將髮短
佩茱還祝得年長
思鄕誰作登高望
落日尖山巧割膓

조선어표준말모음(27)

첫재、가튼말(同義語)

(二) 소리가아주다르고뜻이꼭가튼말

(二) 소리가 아주 다르고 뜻이꼭가튼말

[illegible]

新刊紹介

▲實業之大阪 十二月號 發行所 大阪市北區堂島北町一七 實業之大阪社 振替大阪二二三六二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싸베ー트聯邦畫報 (森林特輯號)八月號內容 世界三分之一을 占하는로시아大森林 其他 森林及木材撤出光景 定價 一年二圓五〇錢 發行所 싸베ー트聯邦모[illegible]

▲[illegible]

▲風林 第一輯 (自我)發陣中三十人集 文藝批評에對한 見解의 相對 隨筆 文藝青年에게 주는글 새로운文學으로무엇을目標로할가 創作 二十五 하이네의안해 等其他 發行所 京城府慶雲町九六 風林社 振替京城二六〇三六番 定價十錢

▲게자씨 十二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六五의六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二三一番 定價五錢

新春懸賞文藝作品募集

應募期限은 十二月十五日까지

◇創作短篇 四百字原稿用紙五十枚以上七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 써야할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戲曲 三幕以內 四百字原稿紙 七十枚以內로하되 上演할수잇는것
賞=一等一篇 五十圓、二等一篇 卅圓

◇詩 長短은 制限하지안코 一人數篇도無妨
賞=一等一篇 五圓、二等若干篇 各三圓

◇時調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民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童話 四百字原稿紙十五枚以上 二十枚以內로하되 한글로써야할것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童謠 入選若干篇
賞=每篇 五圓式

◇野談 四百字原稿紙 五十枚以上 七十枚以內로하되 學句를 떼여쓸것
賞=一等一篇 卅圓、二等一篇 十五圓

◇傳說 實話 그內容은 오직 소에關한것으로써 制限하되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入選若干篇
賞=每篇 十圓式

注意(應募된作品은 入選落選을 勿論코 一切返還치안함 보내실때는 朝鮮日報社學藝部新春懸賞文藝係라고 쓸것)

朝鮮日報社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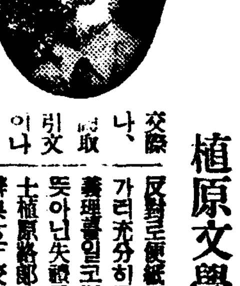
알구진世上에이것은또 一躍成功의快報

算盤一個가唯一의武器

[illegible]

便紙를잘쓰면 立身出世가빠르다

植原文學士發表



交際나、取引、文通이나 便紙를 잘쓰면남에게好感을밧고 어떤일이나 훌륭히 處世할수잇스나

[illegible]

훌륭한! 內職副業이 發見되엿다

營業하지안코多大한利益을어드려하는것은 危險性이만코 며조금만受苦하면一日四五十錢이라도조혼 確實한收入잇는 副業을 內職副業이잇스면一家의增收를어더生活安定과幸福한生活을營爲할수잇다。今回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表한『內職副業總案內』는 理想的인書籍으로서、無資本同樣또는 極小資本으로 男、女老幼누구나할수잇고 그리고本業副業으로서 確實有利한 [illegible] 하엿다 매우小資本으로할수잇는 小賣店의開業法及婦人就職案內도 調查發表하엿다 同書는 四六判約三百頁로特價九十六錢으로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希望者에게頒布함으로 直接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本後支拂卅錢增으로 送本한다。

發見된 雄辯의秘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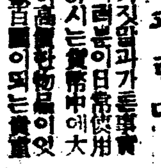
나오라雄辯家

『演說을잘하는것은立身의 成功의基礎』라고한다。現代는 事實上 討論時代이다 自己의意志를充分히 發表치못하며 하고십흔 말을 能히못하는사람이엇다。이러한 사람은 現代의 社會에서는 廢人同樣이다 그러므로어떠케雄辯家가되겟는가? 今回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 發賣한『式辭と演說挨拶の仕方』는 麻生先生이 苦心한結晶으로서 벙어리라난사람은 누구나이冊으로서 熟達한雄辯家가될수잇는 實로理想的快書이다 特히本書에는知名人士의式辭、演說、人事等의 草稿를 無數히充載하엿스므로辯論、演說 講演、式辭、人事等何時如何한場所에서든지서슴지안코 意味明瞭、論理整然、威風堂堂하게 大氣焰을 吐하야 滿堂의 聽衆을 陶醉케 或은感激케하야 拍手喝采를바들것은 다시업슬것이다 그림으로 同書는 最新版四百餘頁クロース金文字箱入美本定價一圓四十錢을 千部限하야 破格 送料共一圓卅二錢으로 送本함。

돈!돈!돈! 돈모기는?

아모리 하여도 時勢이다 그러나 그만큼危險이잇스나 이危險을 突破하면 時勢만큼 滋味잇는것은업다 百萬圓、千萬圓을貯蓄하엿서도 누구나 苦憶을말하는者업는 天下泰平의大賭博이다 今般大阪市東淀川區西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株式期米相場必勝戰術』이라한 時勢道의 極意書로 누구나 試驗하여보아도決코 損을안보는 大理法을 公開한것으로 이理法을 活用함에一攫千金을 어들수잇는 大至寶典이다 一般으로는누구나 不論하고 一秒라도 速히 一讀해야할것이다 그래서 同書는定價二圓을 先着五百名限으로 特價一圓五十錢으로 前記現代出版社에서 希望者에게 頒布하는中이다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 着本拂로送本함

五十錢銀이 八十圓에팔린다



거짓말과가튼事實 여러분이日常使用하시는貨幣中에는大端히高價한物品이잇다 그中에는 數百圓이되는貨幣品도잇고 一錢銅貨를 八十圓以上에팔수잇는것도 잇다 大阪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發賣한『金銀銅貨幣名鑑』에依하야 이러한貨幣를차저서모히두시요 全部前記現代出版社에서買入하는故로右名鑑을三錢切手十枚로 現代出版社學藝部로보내면送本함

人相과姓名의吉凶

人相과 姓名의善惡으로 壽天病死도는運勢盛衰等에 不可思議한關係가잇다。大阪市東淀川區西町 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家庭寶典と名前の付け方』(實價一圓)을보면 [illegible]

"桑港" 크라-크·케-블, 자-넷트·맥도날드主演 MG 발다이크監督 映畫一場面

토-키創作方法

토-키몬타쥬論의昨今 (1)

林蔚川

無聲映畫와토-키-가 박구어진境界線을 明示하자면 一九三○年이다 토-키-가되던以後로 토-키-映畫理論이 생기지안흐면 아니되게된것은 必然한 일이고 따라 토-키-가 無聲映畫의藝術理論으로서는 到底히分解할수업게되것도 또한 오늘常識이라고할것이다。

그러면 토-키-가發生한것과 그發展經路의事情을 이야기할必要가잇는대 쉽게生覺한다면 필림에音響을添加한것 即 스크-린이『말』을가젓다는 技術的事實만올드는수가잇지만 그것보다 토-키-라는技術的變革과가티 隨伴되야서생긴 映畫企業形態의急激한變化와 그러대서 必然的으로規定되는 藝術上의새로운傾向을 考察하는것이올흘것갓다。

大體、映畫에잇서서 視覺과聽覺과를 統合시켜서 公開하일로 말하면 數十年前에도잇섯지만爲先 企業的으로 採算이될가 안될가하는懷疑가 當時의企業家나 一般藝術家의 頭腦가운대 잇섯다。그結果는 一九二七年頃에와서야 겨우 그것도 技術的노벨티-로서맨드試作品(돈·판과짜즈씽거)이엿지만 瞬時間에 아메리카를征服하고 이여서 全世界를 風靡하게이르럿이다

그러대 그러한 토-키-의發生과 隆盛이成功한것은 決코偶然的인것이아닌것은 批評家의定見으로서 卽 토-키-가 그技術的인 發明이 完成되지는 못햇다 하드라도 이미 一九二〇年頃에 技術的 前提는 完備된것이엿다 왜 하필一九二七年頃에야 토-키-를 製作하게 되것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아메리카映畫企業인 經濟的 情勢를 記憶할 必要가잇다。다시 말하면 一九二七年이라면 아메리카 無聲映畫가 大作品主義와 스타-俊制로서 熟成하고만 말하자면 支出이 만코 인컴(收入)이 적어진 映畫企業의 危機라할만한 時期엿다 그때 비로소 토-키-는 새로운活路를 提供할만한 魅力을 가진 映畫의 救濟策이엿든關係로 비로소 토-키-의 모든 技術的在庫品을 出動시켯고 따라 토-키-(映畫)의 金融資本主義化가 映畫의藝術的性質에끼친影響이라서 도한 複雜한것이라는것을 忘却하야서는아니되다

처음으로 토-키-가생기고無聲映畫의 地位를 顚覆시켯슬때 토-키-理論으로말하면 최초린이오래동안固執햇든것과갓티 토-키-否定論에서부터論議를出發하고잇다。

그야 最初에 無聲映畫가 생겻슬때만 하드라도 콘랏트·랑게와가튼 映畫否定論者가 잇섯든것과 마찬가지로 突然히 말(言語)와 音響을 가지고 登場한 映畫(토-키-)를 보고 從來의 映畫理論家의 머리는 混亂하여지지안흘수업섯든것이다。그래서 無聲映畫가 初期에 攻擊을 밧고 非藝術이라고하든것과 同樣으로 토-키-역시 攻擊을 當한것이다。

當時 映畫理論家는 沈默의映畫가운대서 視覺的韻律과。이매지맨트의 藝術로서 映畫의 美的本質이라고 規定하엿드니만큼 토-키-는 畸形兒라고 떠들어낸다。無聲映畫讚美者들의 理論을 들어볼것가트면 오날 우리가 생각할때 아름다운꿈과가티 늣겨진다。

그들은 말한다—映畫의 沈默、無音가운대는 도리혀 아름다운 音響이잇고 色彩가 잇다고 그러치만 어느때나 藝術의 發展과 새境地가 藝術家의 特許가아니고 資本(技術)에 制約을 밧듯이 映畫는 벙어리에야 된다고 떠드는 空虛한獨白을들은체도아니하고 토-키-는 하로하로 急템포로 進展하야갓다 드디여• 스크-린에서 無聲映畫가驅逐을 當하고말엇슬때 그리피즈는 싸이렌트와의 告別辭나 외우듯이 이러케말한다。나는말하는映畫의到來를기쁘게 歡迎한다 고

오날은 頑固한理論家도 토-키-를論하고잇는 時代가되엿다

四日(金曜)

◇午後六時 童話劇 『한네레의昇天』 두루미會 指揮 金相德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植物의過冬 培花女高 李德鳳

◇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東)管絃樂(通俗名曲定期演奏第十二回) 交響曲 第五短調…베-토-베作曲 第一樂章 아레그로·콘·부리오 第二 同 안단테·콘·모로 第三同아레그로 第四 同 同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卅分 레오니-드·그로잇사指揮 伽倻琴併唱 一、短歌 名妓名唱 二、唱劇調東月歌 三、새타령

◇同九時 平壤念佛外 一、平壤念佛 二、자진念佛 三、자진배다라기 四、寧邊歌 五、방아타령 六、개성난봉가 鼓手 池龍九 崔贊 金李玉鳳 寅業

第一送放

五日(土曜)

◇午後六時(大) 童話劇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同七時三〇(東) 講演

◇同八時(東) 管絃樂

◇同八時三〇分(名) 長唄

◇同八時五〇分 詩吟

◇同九時(大) 物語

◇午後〇時五分(東) 맨돌린合奏 東京 맨돌린·쏘사이티- 指揮 內木 清次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午後六時(平) 童謠와唱歌 어린이와작난감 徐恩淑 一、齊唱 燈石 二、獨唱 두아가 三、輪唱 어룽지치기 四、併唱 가을밤 五、獨唱 希望 六、齊唱 제비가오누나 七、獨唱 제비꼿 八、二部合唱 저녁종 光成普通學校生徒 獨唱 李慶天 同 黃南秀 伴奏 韓順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指揮 宋昌一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二) 韓普容 崔南善

◇同八時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平壤歌 三、제비가 四、휘모리 尹一枝 朴玉蓮 姬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協奏曲 第三番G長調…모-차르트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지오 第三樂章 알레그로 伴奏 李興烈 林春沃

◇同九時 野談 出天之孝 庚秋岡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만도린合奏

◇同六時(大)音斷

◇同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三〇分(東)謠曲

◇同八時五分(名)地唄

◇同八時二五分(東)라디오·콤메듸

◇同九時 時事解說

六日(日曜)

◇午前〇時五分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베틀가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범조단봉가 金鄭琮 奉善 運

◇同一時二〇分 레코-드音樂

◇同六時 어린이映畫이야기『빗나는참마음』 成東鎬

◇同六時卅五分 心田開發講演 『榮根譚』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卅分 파-스네개 一、女學時代 二、滿洲의집웅밋三、新作서울구경 四、아들고들잇소

◇同八時 女聲合唱 一、故鄉…申碌吉 二、黃昏…맥킨도니청리作曲 三、五月아침…라코라여作曲 四、創造歌…하이든作曲 製專合唱 指揮 尹聖德 伴奏 李百淳

◇同八時二五分 音律 靈山會相 玄琴 李彥植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諸載昶 杖鼓 李章夏

◇同八時五五分 連續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 三國誌中 三顧草廬 丁貞烈 鼓手 丁元燮

◇同九時五〇分 地方으로보내는 뉴-스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京城으로부터…빠이올린獨奏 一、라좀리아…코렐리作曲 二、軍隊協奏曲 作品十六…베리오作曲 피아노伴奏 桂貞植 朴賢淑

第一放送

◇午後六時(福)라디오·스켓취

◇同六時二五分 産業뉴-스

◇同七時三〇分(東) 散文詩

◇同七時五〇分(東) 長唄

◇午後八時二〇分(東) 寄席

싸인하나에 三百萬圓

米國사람들의 싸인蒐集熱은여간아니여서 全國을 通하야 斯界의 專門家만이 六、七萬名을 突破하고잇다 이專門家라는 사람들은 싸인帖을 冊子式冊裝에 써가지고 호텔玄關에 버티고서 잇는 싸인狂들과는 조금 그趣味를 달리하고잇는데 적어도 차인專門家라면 이것은 歷史的으로 價値잇는 書信이라든지 文書에 적혀잇는署名을 蒐集하는 것이다

그리하야 이署名은 時勢와時價가 어느程度로 基準이서게되엿는데 大統領루-스벨트氏의다이푸라이르편지에 署名이 잇는것은 五弗이며 自筆書信이면十五弗로부터 二十弗可量이다 루-스벨트夫人의 完全한 署名이면 三弗이나 白堊館에서의署名이면 六弗까지간다 元來婦人의 署名이라는것은 그다지흔치안흐므로 대개는 男子것보다빗싸게먹힌다 에리사베스女王의 署名은 五萬弗、젠·오-스틴의 書信은 百五十弗의高價로 呼價되고잇다

그러나 무엇이엇더니하야도署名으로서 高價의 王座는 셰쓰피어로、지금남아잇는 署名이한두개에 不過하므로 무엇이던지 한개에 百萬弗以上으로 바뀔수잇다

米國에서 署名蒐集家가 第一가지고 시퍼하는것은 쪼-지·워싱톤의 署名이다

그의 署名된 書翰은 五十弗이라한다 그러나 링컨의 것은 十五弗가량밧게 못밧고 로-머스 링컨二世의것은 書信이라고는그가矢新하까닭에 하잣바게 업다하야 十萬弗이라도 누구의돈을 바둘지모른다 署名한장에 一千弗을呼價하고잇다 現在米國사람中에는『린드빼』의것이 最高로 署名만하나에十弗 書翰이면 五十弗이며 코난·도일의署名된 書翰은 二弗이면 살수잇스나 딕겐스의것은 三十弗史上의人物中政治家의것은 求하기가쉬운까닭에 갑시헐하다 政治家란 元來書信을 만히쓰는 人種임으로 求하기가 여간쉬운것이 안이라한다 勿論 大統領의것은 이와 別問題로서 하-딩의것은 그任期가 短期엿든關係로五十弗이나밧게되도 또 사람이므로十五弗로부터 二十弗 쿨릿치 가튼이는 편지를만히쓸박게 못밧는다

바-드少將의것은 南極에 西僞月間이나잇섯스나 겨우十弗에 안되며 英國의쇼-의것은한때는百弗까지갓스나 요사히는 時勢가 下落一路로서 十弗박게못밧는다 下落한署名으로는 獨逸皇帝의것으로 以前에는 廿五弗까지밧던것이 지금廢帝가되後에는 五弗이라 暴落을보이고잇다

★曆★

十二月五日(土) 舊丙子十月大(廿二日)

辛酉·木·柳·開

●祭祀에宜함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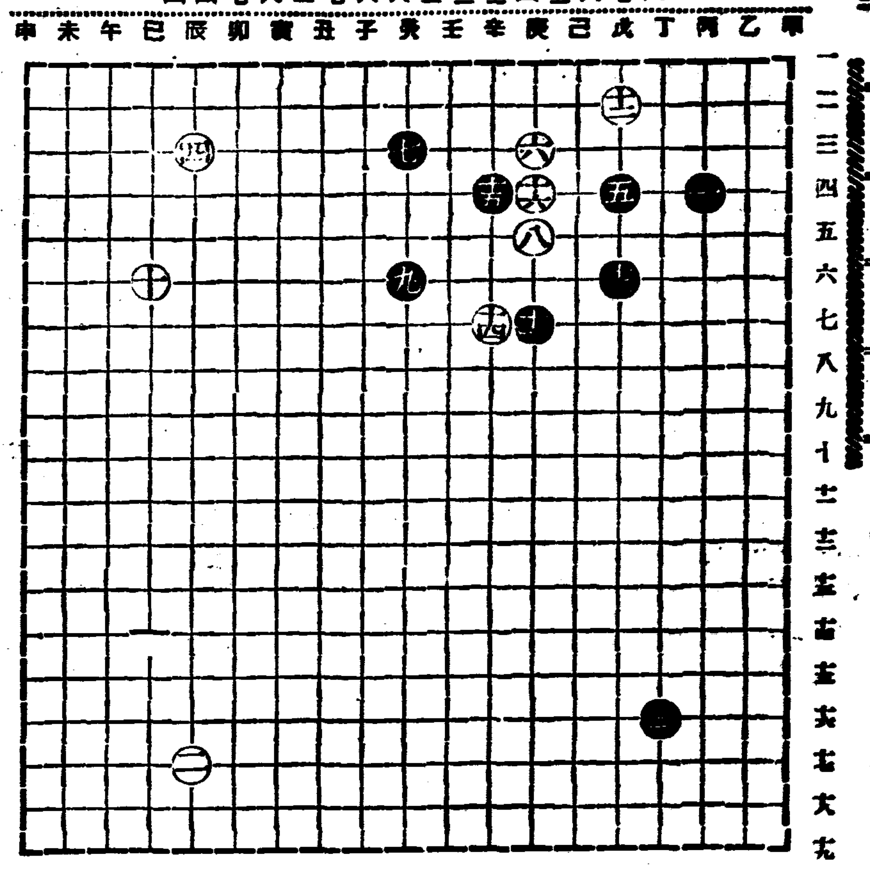
●大雪七日(舊廿四日)

圍碁對局譜 —1—

本社主催

白 [illegible]文 黑先 [illegible]

● 一	○ 二	● 三	○ 四	● 五	○ 六	● 七	○ 八	● 九	○ 一〇	● 一一	○ 一二	● 一三	○ 一四	● 一五	○ 一六
丙의四	辰의十七	丁의十六	辰의三	戊의四	庚의三	癸의三	庚의五	癸의六	巳의六	庚의七	戊의二	戊의六	辛의七	辛의四	庚의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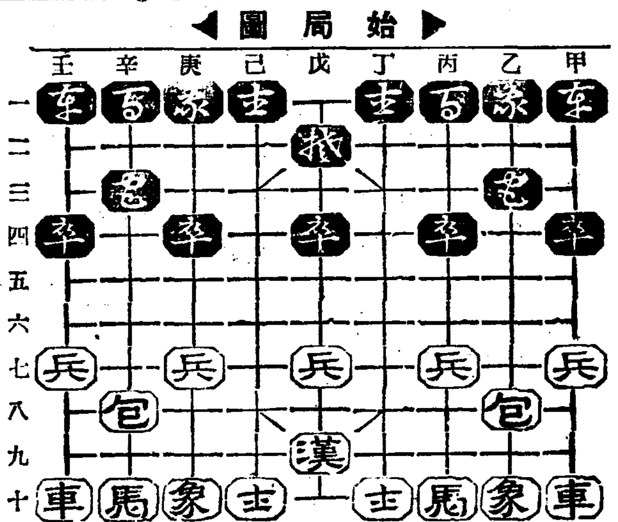
觀戰者談

此局난 會社(?)한 決勝試合이므로 觀光滋味난 絕對的을 推想하노라 黑丙의四 丁의十六 白辰의十七 辰의三은 池盤占據의 對照로 看證되나 俱是常例이고 白庚의三 黑癸의三은 推移하난對抗點으로 認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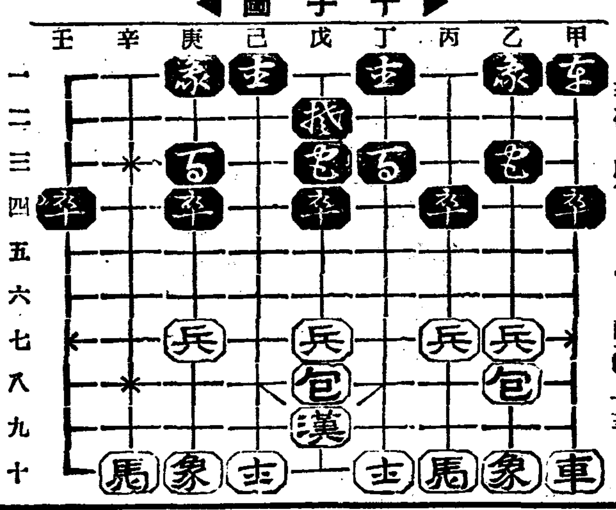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一)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楚 李命輝

◀圖局始▶



◀圖手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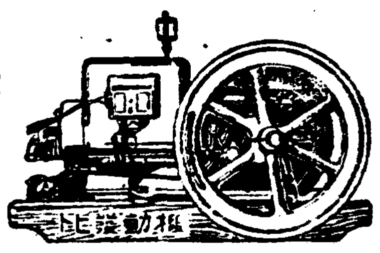


甲七兵—乙七
辛一[illegible]—庚三
辛十馬—庚八
辛三[illegible]—戊三
辛八包—戊八

壬一[illegible]—辛一
壬十車—辛十
辛一[illegible]—辛十打車
庚八馬—辛十打車
丙一[illegible]—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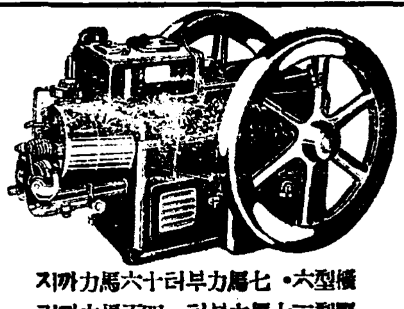
今年도亦是 籾摺精米作業에는

「京動力界의覇王」 農林省御推獎 商工省認定 トヒ印油發動機 シリンダー交換式



二馬力부터二十馬力까지

代表的國産品 ダイハツ重油機關 重油消費量五キロ(六、七馬力) 拾時間에約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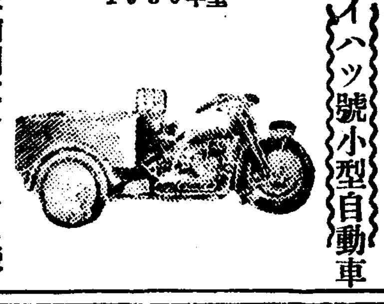


橫型、六•七馬力부터十六馬力까지 竪型二十馬力부터四百馬力까지

貨物運搬用 シャフトドライブ 差動裝置付 揮發油一ガロン으로 四十五哩을닷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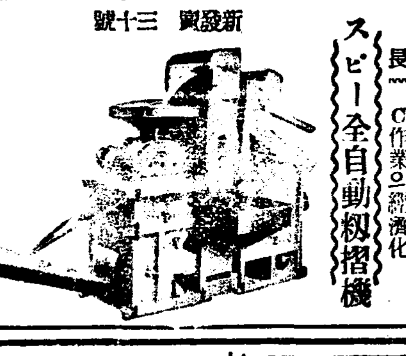
六馬力七分 七馬力半 七馬力半大型

ダイハツ號小型自動車 1936年型



空前의革命的籾摺機 スピー全自動籾摺機 特長 嶄新奇拔한撰別原理 CBA作業의保健衛生化 作業의便利化 作業의經濟化

新發賣 三十號



中農小組合移動營業用 スピー唐箕附籾摺機 六號 CBA型(六時ロール) 四時半ロール 四時ロール

其他スピー米撰機各種 イザハラ式稻扱機 トヒ式鮮滿脫 動力撰別脫穀機(新發賣品)

稻麥兼用 在庫品豐富

鮮滿發賣元 申込次第型錄贈呈

土肥發動機 釜山支店 佐藤農具部 釜山出張所 本社日本岡山

釜山府大倉町 電話長一二六九番 振替釜山一二六九番

朝光

送年號定價三十錢

文化一年間各界總決算

評論……李軒求
創作……金煥泰
詩壇……朴龍喆
演劇……金珖燮
映畫……安碩柱
音樂……洪鍾仁
運動……周王山
經濟……李健赫

朝鮮雜誌發達史 李鍾洙

싸베-트文化論 溫樂中

朝鮮의科擧制度 車相瓚

新羅俠客劍君 青吾

除夜頌 金晋燮 梁柱東 李[illegible] 張德祚 李[illegible]

映畫藝術……朴基采
映畫現像……梁濟雄
朝鮮文藝學……金文輯
朝鮮合文學……金午星

雪夜追憶

失魂의哀愁……毛允淑
헤매이는그림자……无涯
고요한『동』의밤……李孝石
동쪽길을거르며……安懷南

朝鮮人의極東移住來歷 申基碩

朝鮮의古代音樂 咸和鎭

漫文漫畫

漫畫全文壇……崔永秀
[illegible]……崔永秀
[illegible]景……李周洪

映畫界異聞……M M 生
蘇聯의映畫……M M 生
長生의秘訣……k M 生

人氣小說特選集

長篇小說 春夢……方仁根
中篇小說 未完成……朱耀燮
短篇小說 悲歌……韓仁澤
中篇小說 情熱記……嚴興燮
中篇小說 明日……蔡萬植
映畫小說 愁雨……安碩柱
유모어小說 復活……朴慶浩
探偵小說 妻死事件……金煥泰

名寡婦禮順……壽春山人

衛生 子宮內膜炎

畫報 世界人氣女俳優寫眞帖

京城養老院生活風景記……A記者
濟生院盲啞部探訪記……B記者
京城保育院孤兒生活記……C記者

秋色將暮 探訪記

中國小說 故鄉 魯迅

현대 중국의 최고작가 로신의작품은 이제 더소개할여지가 업는명작이다. 이것은그가세상을떠난고령으로실은명편이다

朝鮮産調番申案批判 咸尙勳

賭博風景 京城忙人

朝鮮日報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番 註文은先金으로 即速註文하라

租檢查場所問題로 龍岩浦經濟界暗影

穀物檢查當局의不當處事로 生產者 精米業 勞働者側大恐慌

【龍岩浦에서 金明奎記】 미곡검사(米檢)출장소와 룡천유일의대재벌의 용암포발미아마 타곡은 물론 "지정"까지끗내이고 방안에서 부업이나 할 이때에 이르러 아즉 타곡(打穀)을하지안코 "벼"가용을한채 밧가운데 버려두고 수세(水稅)기다려 세금으로 차압하야가도 방관할뿐이라는 비참한 사실이 평북룡천군룡천면(龍川面)을 중심으로 수개면(數個面)에 발생하야 룡백여지주(地主)와 미곡정미업자가 결의날인하야 평북도당국에는 물론 진남포검사소와 총독부농무국까지 방문키로되엿다한다

아는바와가티 평북룡천군(龍川郡)은 도내유일한 수륙도(水陸稻)의 산출지로 동군의중심지인 룡암포(龍岩浦) 정미공장수개소에서 소비하는것만이 일년간에 약 십삼만석(十三萬石)이라는 놀라운 수자를 보이여왓는데 이번 미곡검사소(米檢)는 장소에서 강제로 지정하는 수검장(受檢場)문제로 쌍방에 알력이 생기어 『벼검사를 하야 약삼개월동안 룡암포에잇는 대소수개소의 정미공장에서는 특이휴업함에따라 수천에 달하는 생산자와 약천명에달하는 로동자(勞働者)는 생활에 적지안흔 중대문제를 이르킴은 물론 정미소에서 생산하는 겨(왕겨)연료(燃料)를 삼어 겨울동안 생명을 부처오든것이 삼개월간이나 휴업을하야 오기때문에 룡암포주민은 연료에 공포심을 이르키어 주민들이 련서날인하야 『연료문제로 긴급히 진정하기로 결의가 되여 룡암포를 중심으로 룡천군일대는 자못 험악한 공기를비저내이고 잇는 동시에 룡암포주민을 비롯하야 부근 상사군의 지주 소작인 상인 로동자들은 미곡검사소와 당국의 무성의한처사에 비난을더지고잇다

受檢場設置權을 一個人에게許與

紛糾는이로부터發端되여 穀檢所와業者間對峙

지난칠일 룡암포에잇는 미곡검사원주재소에서 그곳에잇는 정미업자들을모아 『벼』수검장을 설치하도록하라고 함으로 업자들은 고려하야보겟다는 말을남기고 돌아와 업자간에 상의를한결과 수검장을 설치할필요가업슴으로 설치가부를 회답하라는 구월이십삼일에 수검장을 설치할수가업다는 회답을하얏더니 검사소에서는 그러면 개인의 수검장을 설치하도록하겟다는 말을남긴후 룡천의 대재벌인 평북도회의원 길전아일(吉田雅一)씨 일개인에게 설치권을 주어 폭리를 보게하얏슴으로 그곳잇는 업자들은 다시 미검소를방문하고 수검장을 공동경제로 설치하겟다고 말을하얏슨바 그러면 길전씨와가티하도록 하라고 함으로 동업자공동을 설치하기

生產者等大結束

로결의가되엿슴에도 불구하고 길전(吉田)씨가 업자간에 한등의상의도업시 자긔마음대로 읍내에서 약이십정보가량 떠러저잇는 교통이불편한 자긔토지에 수검장을 설치하기로되여 공사에착수하얏다는 말을남기고 공사를한다음비용을 부담하라고함으로 업자전부는 이에반대함은 물론읍내로부터 멀리떠러저잇는 교통이불편한곳에설치할수업다고 반대를하자 검사소에서는길전(吉田)씨가 설치한곳에가저다가 검사를맛지안흐면 검사를마처주지안켓다고함으로 업자들은 이에대항하야 그달부터 정미공장을 폐쇄하고 지금까지 한섬의 정미를보지못하고(검사를하야 주지안흐므로)검사원대업자간에 알력이 생기엇다

打穀猶豫로對抗

水稅等各種稅金이問題

[illegible]어로볼미아마 례년가트면 벌서 "벼" 오만여석은 정미공장에소비되엿슬것이나 검사를하야주지안는관계로 지금까지 수석의정미를 보지못하얏슴은물론 타곡하야둔 농가에서는 방옥리용하야 양시(楊市)、신의주(新義州)로 약간의반출된것이 이만여가량에달한모양으로 룡암포경제계에는 적지안흔 타격임은물론 [illegible]만석을소비하야왓슴에도불구하고 금년에는 이판계로 십만석을 지나지못할것이라한다 더구나 부근농가에서는 논(畓)에서 "가을"을한채 싸어노코 타곡을하지안흐므로(검사를하여주지안흐므로)수리조합 수세(水稅)를비롯하야 여러세금을납부하지못하고 논에싸허둔 "벼"를 차압하야가도 할등의 대책을강구하지안코 방관할뿐이라는 눈물겨운사실을 비저내고잇다한다

穀檢當局者의暴言

農會長態度에憤慨

業者等結束陳情決議

[illegible] 자긔명에 업자의량해도업지안코 마음대로 설치한 다음 미검소측을 리용하야 [illegible] 검사소로부터 [illegible] 길전 [illegible] 되엿다는데 이는 [illegible] 직취수 [illegible]에 분개하야 업자간에서는 교통이 편한읍내 중앙지에 수검장을설치하고 수검세로 한섬에대하야 이전사리칠푼이라는세금을밧겟다고하야 업자대표가군농회장인 룡천군수 장윤희(張潤熙)씨를 방문하고 길전씨가 설치한 수검장은 교통이 불편할은물론 수검세금에 잇서서도약 배로 일년간에 십만석의 수검을내인다하면 일만오천원이라는 거액이 생산자에게 손해가밋칠것임으로 농회회장으로서 정당한 비판을하야 달라고 진정을 하얏스나 결국에는 미검원과길전의 안면을보아 할수업다고미검소와 타협하고 말엇슴으로 하는수업시 업자들의 요청으로 지난시일 생산자편에서는 룡천면에소집하야 장소문제로부터 결의하기로되여잇슴에도불구하고 소집하야 노코는 중요한장소문제에 대하야는 아무말도업시 폐회하려고함으로 이에분개한 룡천의 대지주인 김사영(金士泳)씨가 일본내지어를 하지못하는관계로 조선말로 장소문제에대하야 주밀한질문을 하얏는바 이에대하야 지판(檢判)주임검사원은 일본내지어로 검사영씨의 말을통역하야주지말라는 언어도단의말을 함으로 김사영씨는 미곡검사부라(府羅)지소장 좌분(佐分)씨에게 달려들어 질문한결과 잘못하엿다는 사과까지바든 사실이 잇다고한다

그후 총독부 농무국으로부터 진등(進藤)기사가 시찰로 룡천에 출장하엿슬때에 정미업자 장(張承煥)씨외 두명이 방문하고 업자간에서 수검장을 무료제공하겟다는 진정을하얏슨바 조토록 하야준다는 말을남기고 갓지도이미 일개월이지나도록 이에대한 해결이업슴으로 룡천유지 김사영(金士泳) 김태규(金兌奎)업자 장승환(張承煥)씨 등의 발기로 륙백여명 생산업자의 결의를어더련명날인하야 각관계당국을 방문하고진정하게되엿다한다

精米界休業으로

勞働界 商業界 모두다打擊

燃料까지도問題

룡암포는 본래 연료(燃料)가 적은곳으로 그간인구(人口)의증가로 적지안흔불편을이르켜 부근섬(島)에서 산출하는 "갈"로 일부의연료를삼고 대부분 정미공장에서나는 "벼겨"로 연료를삼아왓는데 이번 신의주 "팔푸" 공장의진출로 "갈"을베이지못하게되여 적지안흔공포를이르켜오든중 미곡검사소의 무리한행동으로 『벼』검사를하야주지안허 삼개월동안이나 휴업하게되여 이에따라 "왕겨"의산출이중단되엿슴으로 연료의부족을이르켜 룡암포주민은 극도의공포를 이르키어 『왕겨』한섬에 사、오십전하든것을 이지음에는 한섬에 일원사십전이라는 전조선에서 보지못하는고가로 폭등하야 이상태로 한달만계속되면 연료의부족으로 겨울을 지날수가업기때문에 룡암포주민들은 시민대회를열러 연료문제에대한 대책을강구하는동시 각방면에 진정하려고 방금진행중에잇고 정미소와 『벼포망거부』로 생활하야가든 약천명의 로동자와 차마부(車馬夫)는 생활의길을 일허 암담한 룡암포거리에서 헤매고잇스며 대도회지는 그점에서일반가에쓰는 벼포망쪽외에 바러왓는데 금년에는 "벼"검사를하여주지안키때문에 농가에서는 별항보도한바와가티 아직 타곡하지안허 채굴을 갈홀수가업슴으로 자연 룡암포경제계(經濟界)에 변동을 이르켜 상인들은 곤궁에빠저 룡천군내에 큰 암영을던지고잇다한다

大地主 金士泳 氏談

사건의 전말을 듯고저 김사영씨를 차저가니 김씨는 분한 어조로 다음과가티 말한다

미곡검사주재원의 무리한처사는 터무니업슬것입니다 저로서볼한것은 가장 정당한말을 하엿슴에도 불구하고 멸시바든것이 분합니다 룡암포에거주하는동안 이런 멸시는 처음 엇니다 약한사람이니 할수업지요 운운

米檢支所長 渡邊氏 談

과자의 질문에대하야 회답을 피하고 화두를돌리여 뭇지도안는 말로시간을 보내려하며 끗까지 업자와 검사원간에는 큰 알력도업고 다만 일극관계로정미업이 한산하야젓다고 짓거릴하다

學齡兒童二萬에 就學은不過四千

甕津郡의初等教育狀

【甕津】황해도옹진군은 해주를 사이 풍부하고 특히 광어성적이 우량하야 전조선에서 갑을(甲乙)을 다토고잇는곳으로 군내호수는 일만구천사백십오호 인구는 구만륙천륙백구십칠명인데 해옹선(海甕線) 개통을 따라 더욱 발전될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등교육상황을보면 한심하기 끗히업다 군당국조사에 의하면 학령아동이 일호에 일인식 계산하드래도 일만구천여명인데 현재 취학하고잇는 아동은 불과 사천이백륙십팔명으로 이를 다시구별하면 아래와갓다고한다

龍湖島公立水產學校二學級 二五名
溫井尋常高等小學校二學級 九七名
公立普通學校十二校、三十四學級 二、六四四名
簡易學校數四校四學級 一六六名 私立學校三、四學級 二五九名 書堂三九校三九學級 一〇〇一名

手形濫發事件

關係者送局

【大邱】대구부남산정(南山町)고장길상(張吉相)씨의 고소장에 의하야 대구서사법계의활동으로 보게되여 대구무진회사사장(大邱無盡會社社長) 현부회의원(府會議員)

精米、고무를뒤니어 洋襪業界또恐慌

原料高에購買力까지減退로 憂慮되는平壤商工界

【平壤】평양부내에는 현재양말업자(洋襪業者)의수가 자동식(自動式) 대규모의 공장사십처와 수직식(手織式) 소규모의 공장백여처가잇는데 최근에는업태가 말못되는상태에빠저 휴업하는공장이 대소를합하여 수십처에달햇고 계속하여 휴업하는 공장의 수를보이고잇다 그리유로는원료(原料)인면사(綿絲)가삼할(三割)이나 폭등해진반면에삼남지방의 풍수해(風水害)관서지방의한해(旱害)로농촌의 구매력(購買力)이반감하기때문이다 이래서 빗싼원료로 생산한대도 구매력이업서 엇절수업고 그러타고 양말갑을 인상할수업스며 직공수(職工數)를 축소할수업는 가장곤난한 비상시에 직면하게되여 할수업시 휴업을선언하지안흘수업게되는현상이다 이때문에 업자들의 곤경도상상하기에 충분하거니와 이보다도 삼천여명의 직공의생활문제와만여명의 가정부업자(家庭副業者)들의생활이큰문제가 아닐리라한다

고무공업(護謨工業)이 원료폭등으로 그러하고 정미업(精米業)이 정조(停租)로 그러한데 이제양말공업마저 원료고와구매력 감축으로 그러하니 평양으로서 가장중대문제에 봉착하엿다할것이다

帆船三隻이顚覆 船夫三名이失踪

黃海暴風被害또判明

【海州】황해도지방의 지난번폭풍에의한 참해상황은 속속판명되고잇다──상업 황해도 보안과(保安課)에도착한 보고에의하면 십일월일일오후열시경연백군해성면호남리(延白郡海城面湖南里)부근에잇든 범선(帆船)세척이 돌연이러나는 폭풍으로말미암아 파선되엿는데 선원(船員)세명이 행방불명이되엿는바 이들은 사망된것으로 판명되여 피해액은 방금조사중으로 판명되지안헛스나 상당히 거액에달하리라한다

產組組織不平

【平壤】평남도산업과와 평양부산업계당국에서는 고무회와 양말업자(洋襪業者)를 망라하여산업조합(產業組合)을 조직키로되여 그동안 세차례의 회합이잇슨결과 고무공업자들은 매공장에서 경비일백오십원식을 부담하기로하고 거의 조직이갓가운 모양이나 양말동업자들은 좀처럼 실현이곤난한모양이다 그리유로는 현재 부내의 양말업자들의 업태를 보면 자본에 잇서서 륙칠만원 정도의 업자와 사오천원 정도의 자동식(自動式)기게업자가잇고 또이십원 정도의 소규모의 수직업자(手織業者)도잇서 여기에 따르는생산수량(生產數量)과 규모의 대소의차이가 대단한터인데 이것을 일률로 다시설합한다면 특가를 권리를 부여하야 조직을 한다면 후일에 정관운동(定款運動)에 대규모업자와 소자본의업자 사이에서 리해가 상반되는점이 만허 필경통일되지못할우려가잇다는것이다

이때문에 양말업자사이에서는 전도의 분규를예상하고 자동식업자들만을 망라하여 조직한다면몰라도 그외사기잇다하나 결국 도、부당국에서는 소규모업자까지 총망라하여조직할의사로 고압적태도에나아와 쌍방에서는간격이업지안허 과연 산업조합이 무사히 생기어질지가 의문시되고잇다

또 도、부당국에서는 생산품전부를 검사할의향이나 양말업자측에서는 외국수출품(外國輸出品)에만 한하여 검사를희망하고잇고 이밧게 경비부담등에 잇서서도 말성이 업지안흔만큼 갈수록 주목되고잇다한다

平南各水組水量 明年도樂觀不許

平安、慈山、江西等六割에不過

當局에서도對策講究

【平壤】평안남도에서는 금년여름에 대한발로 각수리조합저수지의 수량(水量)의 부족으로 이앙불능(移秧不能)에빠저 손해가 막대하게되여 가슴을 태엿스므로 명년에는 다시 전철을밟지안는다는 결심하에서 미리부터 각수리조합의 저수량을 조사한결과 장수원(長水院) 순남(順南)은 만수(滿水)가되엿스나 자산(慈山) 평안(平安) 강서(江西)는 륙할 대동(大同)은 사할이라는 상태인것이 판명되엿다 이만한정도로 이앙에는 별지장이업겟지만 이앙후의 관개수로 곤난하게되겟스므로 대책을 강구하노라고 머리를앓코잇다

仁貞圖書館의 創立五週記念

【平壤】평양부내 창전리(倉田里)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에서는 오일오전열시삼십분부터 그도서관안에서 창립오주년기념식(創立五週年記念式)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설립자 김인정녀사(金仁貞女史)의 인사 경과보고 래빈들의 축사로 긔념식을 맛친후 다과회가 잇슬터이다 이날밤 일곱시부터는 백선행긔념관(白善行記念館)에서 창립긔념강연회(創立記念講演會)를개최할터인데 적산(荻山)총독부도서관장과 리긍종(李肯鍾)상공신문사장등의 강연이 잇슬터이라한다

黃海線水橋、長淵間 來一月下旬開通

【長淵】조선황해선 수교─장연간연장공사는 긔보한바와 가티금춘에기공하여 공사에지장이업시 순조로진행되여 지난번 락성되는조선철도회사과장 근등(近藤鐵太郎)씨가 래연하여 공사를 감독한후 개통일을 래일월이십일로 결정하엿는데 가정거장부터 철야공사중임으로 래년벽두부터 교통상 불편하든것을 일소후 원활한 운수교통이될터이여서 자못일반의 긔대가적지안타한다

明年度부터着工 野口財閥의巨彈

鴨江水電도經營

【咸興】장진(長津) 부전(赴戰) 허천강(虛川江) 수력전긔(水電)와 허천강 수력전긔까지 경영하야 장차전조선을 전화하려고하는 전긔왕 야구준(野口遵)씨는 이번 또 그 경이적사업의 손을 만주(滿洲)에까지 뻐치게되야 압록강대수전(鴨綠江大水電)회사를 경영하게되얏다는 소식을 전하고잇다 조선(朝鮮)회사측의 확실한 말을 들으면 최근 압록강수전(鴨綠江水電)에대하야서 만주측과 조선측당국과 절충을 거듭하고잇는 모양인데 이 절충의결과 총발전량백만『키로』(제일긔사업삼십만키로)오천만원의 자본금은 만주국과 만철(滿鐵)에서 합하야 절반인 이천오백만원을 출자하고 나머지절반은 야구(野口)씨가 일만합판(日滿合辦)의 공동경영조직으로 하리라고한다

그리고 제일긔사업은 명년도부터 착수할터이라고하는데 끗업시 뻐처가는 야구재벌의 전긔사업에 일반의경탄이 극히 크다

貨物自動車가 自轉車와衝突

【平壤】이일오후네시삼십분경평양비행장부근대 일등비행병 구보무(久保茂)가 조종하든 비행대소속『추럭』은 비행대 입구부근에서 부내선교리(船橋里)로선용(盧善容)(二七)이 자전거를 타고가는것과 충돌되여 자전거는 부서지고 로선용은 후두부(後頭部)를 다치어 부근 병원에 입원치료하엿스나 절명하고마럿다한다

明倫普校展覽會

【平壤】평양부내 명륜보통학교(明倫普校)에서는 칠일오후한시부터 칙어봉안전(勅語奉安殿)의 준공식을 거행하고 팔일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운동장확장(運動場擴張)교사증개축(校舍增改築)준공기념으로 아동작품전람회(兒童作品展覽會)를 개최하기로되엿다한다

扶餘發着自動車 運轉時間改定

【扶餘】론산에본부를둔 충남자동차운수주식회사에서는 십이월일일부터 개정실시되는 긔차시간을조차 동회사의 영업선로인 부여선의시간을 각각 개정하엿다한다

驛便所壁書가問題 容疑者만은釋放

順川署檢擧事件後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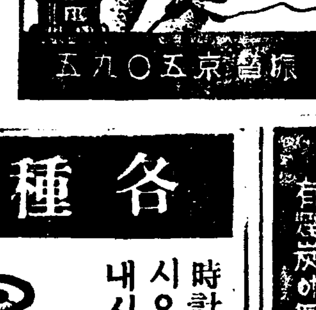
【舍人】긔보=지난이십구일 평남사인역(舍人驛)에 벽서를써붓친 자가잇서 순천경찰서 고등계원이 출동하야 청년수명을소환취조할뿐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문서등까지 압수해갓다고 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 듯건대는 얼마전 사인역(舍人驛)변소담벽에 엇던자의 작란인지 심상치안흔 불온문구를 늘이여 노앗다는데 이것을 알게된 순천경찰서에서는 엇던배후관계나 업슬가? 의심하야 사인시청년리용성등을 인치취조하야보앗스나 그필자(筆者)를 알아내지못한채로 지난일일오후에 모두 석방하고 말엇다 아직도그 서에서는 그필적을 사진으로하여가지고 조사하는일방 그변소(便所)에는 쇠를잠거 엄중보관하고서 필자만을 계속하야 엄탐중이라한다

勤續校長 彰

【文山】지난십일월일일 진주군문산면(晉州郡文山面)공립보통학교에서는 동교중도(中島)교장、십년동안을 한결가티 아동교육에 근속하얏슴으로 관민다수집합리에서 학부형주최로 긔념품수여식을 성대히거행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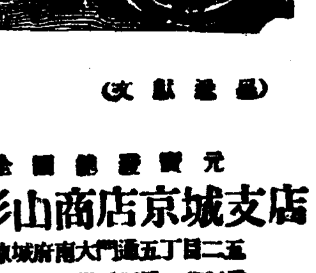
不動產賣却
一、所在 京城府蓮建町一九五番地
一、六百五坪
一、地上建物(二)煉瓦造二階建 [illegible]
右賣却하시랴는이는 京城府私立培成學校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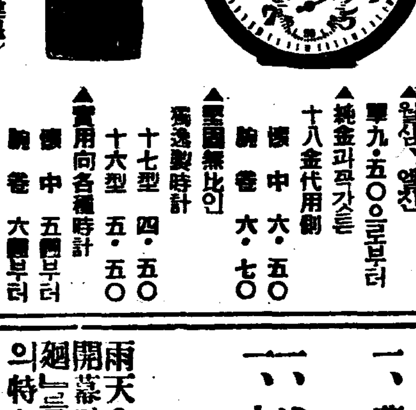
이은자리가업는軍手製造家募集
軍手製造는이은자리가업는軍手에 製造簡易收入多大 希望者는說明書進呈
京城西大門町一ノ八四 常盤商會京城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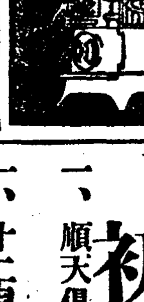
文具卸商 株式會社 彰文堂

京城仁寺町電話光化門三ニ八・振替京城五〇九五

山羊分讓 京城東小門外 瑞西直輸入種 牧場用乳用山羊 山羊乳配達 明本牧場

朴家粉・クリーム 박가분・크림
本舖 京城蓮池町 電話光化門 [illegible]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京城鍾路四丁目 綢緞綿布都散賣商 電話光化門 [illegible]

クボタ 機動發 石油輕油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自九月一日至十二月末日
(文獻進呈)
元賣捌總代理店 合資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各種時計大廉賣

時計를사시려면먼저弊社로照會하십시오이와갓치갑눅은時計가잇슴에놀내시리다
(クサリ、メタル無代進呈)
右時計를買入하신後、廣告와틀리거나 或不合意하시면代金을返金하오며 (商報進呈) 特約店募集
合名會社 三一洋行 新義州初音町二 振替京城二四一一二

一点非無煙最新型 センター ストーブ 有煙炭이無煙


東亞無線技術研究所 研究生募集
募集人員 二〇名 受付期間 十二月末日 就職責任 設備完全 規則書(要二錢)
京城府館洞町四三 電話光九一五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筆業○勸人學生幅來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贈答品에는 明治の菓子

明治製菓株式會社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產婦人科 醫學士 李麟[illegible]

百発百中 捕獸器
萬人待望의大利副業은捕獸가第一!

痔疾 田春堂醫院 京城惠化町一〇九ノ一

東劇座巡業日定表 木浦
十二月一日、二日、三日、四日、五日
明三十日 東劇座 木浦
初日
一、順天俱樂部 十二月六日七日
一、晉州三浦館 十二月八日休演 九日十日十一日
一、統營蓬萊館 十二月十二日十三日
一、舊馬山共樂館 十二月十四日十五日十六日
一、大邱、浦項劇場 十二月十七日十八日十九日二十日
雨天을不拘하고定刻에開幕하는것과所謂「一廻」를主義하는것이本座의特色입니다
新富座 桃花劇場 專屬 東劇座

經濟解說 米穀配給會社 그目的과朝鮮의特殊性

洪鍾仁

三日부터 東京에서 開催된 米穀配給會社協議會에서 農林省案으로 發表되바는 各方面에 相當한 注目을 끌고잇는 中 朝鮮으로서도 그 趨移가 注目되고잇다 그러나 總督府當局으로서는 日本內地에서 그 實現을 보게된다하여 곳 이에 追隨하지안흐면안될 理由는 업다고 보고잇다 그 理由로는 同案의 出發이

一、米穀自治管理法의 實施 公定米價의 設定等으로 從來 公正한 市價의 示現과 配給의 圓滑이 注目되든 取引所의 機能이 大部分抹殺되게되엿고 압흐로 더욱 統制를 强化할 에는 더욱그企業存立의 意義가 薄弱케되므로 이때에 取引所의 救濟를 加味하여 米穀商과 生産者를 加入케한 配給機關으로 그機能을 增大케하자는것이어서 年六分의配當도 政府가 保障하자는것이다

一、또 政府로서도 米穀統制를 强化하야 公定米價의 設定으로 價格을 統制하며 또 自治管理로서 數量과 同時에 價格을 調節하려는 以上 配給만을 民間機關에 放任하여 둘수업는 事情이잇다 例를들면 [illegible]

[illegible]

朝鮮의米取統制 拙速追隨를排擊

朝鮮의特殊事情을考慮함이必要 當局과取引所間諒解

日本內地의 米取改組에 關聯하야 朝鮮의改善은 各方面의 關心을 끌고잇는데 右에對하야 朝取秋山常務理事는 如左히말하얏다

日本內地의 米統會社案은 아즉案의域을 不脫한것으로 來後議會通過實現까지에는 相當한曲折이잇슬것이다 朝鮮의對策으로서는 日本內地의 歸趨를본後 一兩年遲延되드라도 朝鮮의가진特殊事情

一、米의生産地인點

一、米取가一株式 其他會員組織인點

의兩者를充分히 參酌하야 合理的解決을 計劃할것이오 이미當局과도 이에對하야서는 諒解가成立되엇다 從하야 朝鮮의改革은日本內地의 直譯的 拙速主義를排擊하고 早急히할必要가업다

米穀配給會社案 農林省原案發表

【東京電話同盟】米穀配給協定協議會는 三日午後一時부터 米穀利用硏究所에서 開催하고特別委員會에서 作成된 米取改組에件한 半官半民會社設立에 關한具體的骨子案으로서 佐藤、中野案을 佐藤第二部長이 說明意見交換이잇섯는데 賠償金其他의 事項에 關하야 民間側委員의 反對가잇서서 最後的意見의 一致를 보지못하고 結局佐藤部長이 特別委員을 指名하야 佐藤中野案을 基礎로 今後硏究를거듭키로하고 同四時半散會하얏다

右協議會散會後農林省은 佐藤中野案으로서 會社設置의 要項을 如左히 發表하얏다

【農林省發表】=米穀配給組織은 從來主로 自然發展에 任하얏는데 現在로보는것가티 複雜多岐한狀態를 呈키에至하얏다 配給機關과如함도 或은米穀取引所、米市場米穀取引業者의團體、米穀生産者의團體等各種의 形態로난우이어 自由의活動을하고 此間相互有機的聯絡을缺함으로 米穀統制政策의圓滑한遂行을 期하는데잇서 遺憾인點이不少하고 特히 米穀取引所와如함은 投機取引을 主로하는것으로 健全한 市場機能을發揮할수업는 實情임으로 米穀統制制度運用上 支障을招來할狀況이다 이에 從來의 米穀配給機關의 整理統合을 行하고 米穀配給의 主流가되는 米穀取扱者及 米穀生産者團體等을 包含하는 全國的一大配給機關을 特設하야 米取引을 主로하는 市場을 開設케하고 公正妥當한米價를 決定하야 米穀取引의 指標가 되게하는同時에 米價의變動에伴한 危險을 分散緩和하기에 便코저한다 米穀取引에 附한 諸施設을 行함은 米穀統制의 圓滑을期하는 所以일뿐아니라 米穀統制法의 運用上 極히緊切한要務라고 信한다 米穀統制法과關聯하야 特別法規를 制定하고 日本米穀配給株式會社를 設立하야 現存의 米穀取引所及米市場에關하야서는 法規의 改廢 其他必要한 措置를 講究함이 適當하다고 認한다

朝鮮信託業績

朝鮮信託會社에서는 來十二、三日頃 重役會를 開하고 總會附議事項其他에 關하야 協議할터인데 株主總會는 二十八日頃 銀行集會所에서 開催할豫定이다 그런데 株主配當은 前期同樣으로 六分據置할 模樣이며 重役은 取締役一名 任期滿了로二名缺員인바 缺員은二名모다 補充할는지 그與否는 未定이다 그리고 期末의 信託財産은 如左하다 (單位圓)

金錢信託	
不特定信託	[illegible]
特定信託	[illegible]
金錢信託以外金錢信託	一五、一七六
有價證券信託	三、一〇一、八〇一
金錢債權信託	八〇、一五九
不動産信託	一七、三三七、九九九
合計	六二、三二七、二三七

前期에 比하야 四百三十六萬千三百三十五圓의 增加인데 그內譯은

金錢信託	五三四、四六五
不動産信託	八二六、二二〇
有價證券信託	三、九九〇、七五〇
金錢債券信託	一〇、〇〇〇

等이오 이外에 不動信託을目下 代理事務取扱을 하고잇는데 信託登記未濟의것 二百五十萬圓이잇서 不動産管理는 益益增加의 趨勢를뵈어 良好한傾向이다

또 本期中에 朝信이 小作의米收納을 한것은 今年은 不作米에不拘코 約七萬石에 達하엿다

內油社의前途

現狀維持는困難

明年度의 石油配定量은 目下總督府殖産局에서 詳細한 數字的 硏究를 行코잇는데 從前대로 朝鮮石油第一主義를 取할지 或은 內外社에 幾分의 緩和的配定을할지 注目되는바 明年부터는 政府의 燃料國策에 基한 朝鮮의 石炭液化가 具體化되고 그製品도 出廻케될것으로 이石炭液化油가 市場에 나오다면 먼저 이에 優先權을 設할것이 明白하므로 朝鮮의 石油政策의全貌가 나타날것이다 그結果로서 內油社에 相當한 影響을及할것으로 到底內油社의 現狀維持는 困難하다고 봄이 當然의 歸結로서 明年度의 期間은 六個月間이라 한다

米日爲替市況

【經濟三日發同盟】米日爲替 賣 二八弗六八仙 買二八弗六〇仙

東京

對米 賣買 二八弗二分一 二八弗八分五

對英 賣買 一志二片 一志二片三二分一

經濟界消息

○製絲協會總會=朝鮮製絲協會에서는 來十二月十五日 蠶絲會館에서 定期總會를開催키로되엇는데 附議事項은

一、昭和十一年度決算件

二、昭和十二年度豫算件

一、同上事業計畫件

의 三項으로서 問題가 되어잇는 過剩繭整理問題는 協會로서는 直接關係가 업슴으로 總會後協議할 豫定이며 結局代表者가 渡東折衝키로 되엿다 한다

朝鮮產品販路開拓

外事課에通商係設置

朝鮮産品의 新販路開拓을目標로 對外貿易에 積極的으로進出키로된 總督府外事課에서는 今年度中에 通商係를設置하고 事務官一名、屬若干名을 專任으로서增員配置키로 되엇는데 同係와呼應하야 在外領事館商務官을 總督府囑託으로서 朝鮮産品의海外進出에 當케하기로되고 過般渡東한相川外事課長이 關係各方面과 俱體的折衝을 行하엿든데 大體諒解를 得하얏슴으로 目下福島、宋兩事務官을 中心으로準備中임으로 이것이 實現될모양이다 그리고 對外貿易振興策의 第一次로서 먼저比律賓英領印度南洋暹羅南中國의 各國十個所의 樞要地의 領事館商務官을 囑託하야 朝鮮産品의 賣行商況等에 就하야 綿密한 調査를 行하고 更히 嗜好適合도 詳細히 調査硏究한後 朝鮮産品의 販路를 決定할方針이라한다

經濟寸鉄

○ 朝鮮産品海外進出策을 積極的으로 講究中이라고

○ 大工業輸出을 한탄만하지말고 家內工業의特産이 相當히 만으니

○ 이런것들좀 精神차려 해보도록 합시다

朝滿貨幣의混流

總督府朝銀間에異論

朝銀의 滿洲支店後退에 伴한國境地方의 朝銀券滿洲國幣의 混流에對하야서는 現實問題로서朝滿兩當局에서 對策을 講究中인데 總督府의 意向은 外國紙幣가 流通되는것은 外國爲替管理法에도 抵觸되고도라하야 兩國紙幣의 混流를 禁止할 意向으로 各金融機關에對하야 兩國貨幣의 兌換을 强制케할意向인데 이에 對하야朝銀은 兩國貨幣의 混流는 實際上支障이업슬뿐아니라 金融機關이 强制兌換케하야도 兩替店이 簇出하야 結局은 兩替店의取締를 行하여야할 事態를招하리라하야 兩國貨幣의 自由流通을 [illegible] 何等支障이업다고보고잇슴으로그 結末은 未解決의 問題로서 注目되리라한다

朝銀新義州支店

總督府에서不肯

朝銀은 滿洲各支店을 滿洲興業銀行에 引繼함에 伴하야 安東縣의 支店도 興銀側에讓渡케되엇는데 그대신 新義州에支店設置를 希望하고 總督府에對하야 內申을 行하얏는바 總督府로서는 新義州의 金融機關立을 理由로 希望치안는다 한다 이에對하야 朝銀當局은 如左히말하다

新義州의 各金融機關에 朝銀의進出은 摩擦이激化되리라는 總督府의 意見이 그럴듯하나 滿洲興銀의 安東支店이 從來의 朝銀의地盤을 繼承하고營業하는以上 當然新義州에 對하야서도 確實함으로 金融의손을 張할것은 外國에빼앗기는 結果로되엇스니 이것은重大한일이다

朝銀北平支店

來年初에開業

朝銀의 北平支店은 十二月十六日 開業할豫定이엇스나 手續關係上 年內의開業은 困難하야來年初에 開業할모양이라한다

露積金融에 東拓이進出

從來는危險視하던것

【東京電話同盟】東拓에서는 例年朝鮮米內地移入을 統制키爲하야 米穀應急資金으로서 大藏當局으로부터 低利資金供給을受코잇는데 十二年度는 右應急資金으로서 一千六百萬圓을計上하기로決定하고貸出日步一錢三厘、이미右一部의貸付를 開始하고잇다 即右一千六百萬圓中 六百九十萬圓은 大藏省의低利資金에 依하야 넘어지는 自己資金으로 賄할豫定이라한다

一、農會倉庫의境遇는 證券擔保

一、露積의境遇는 現物擔保

元來朝銀에서는 露積을危險視하고 貸付를謝絶하고잇섯스나 今回東拓이露積에도 應急資金을 融通케된은注目된다한다

預金、貸出 모다增加

十一月末組銀

十一月末日 現在京城組合銀行의 預金貸出高를보면 預金은一億四千二百七萬九千圓으로 十一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一千二百十八萬三千圓增加、前年同期에 比하야 一千三百十五萬六千圓減少、貸出은 二億四百九十九萬二千圓으로 十一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一千二百七十七萬七千圓、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千四百十七萬二千圓의 各增加이다

證券所持少減

十一月末日現在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所持는 二億七千四百八十萬五千圓으로 十一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二萬圓의減少、前年同期에比하야 七千九百八十一萬一千圓增加를示하엿다

東拓支店貸付增加

十一月末日 現在東拓 京城支店의 貸付는

定期貸付	五、一七九、〇八四
年賦貸付	七、一七九、九三一
合計	一二、三五九、〇一五

로十月末日現在에 比하야 六萬八千八百九十五圓增加를示하얏다

京城手形交換

十一月中의 京城手形交換高는 枚數十三萬九千三百三十一枚 交換金額은 九千百六十一萬八千二百圓 交換差額二千百四十九萬八千九百七十四圓으로 一日平均은 六千五十七枚 金額三百九十八萬三千圓이엇다

	枚數	金額
今月	[illegible]	[illegible]
前月	[illegible]	[illegible]
前年同月	[illegible]	[illegible]
前年前月	[illegible]	[illegible]

取引停止

(十二月一日)▲京城 和泉町三六 滿鮮洋酒商會 赤沼一郎 ▲京城府鍾路二丁目四 洪憲基 ▲京城府茶屋町六二 善商會 朴熙善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當限落의 場面은 雙方이 警戒氣配인데 [illegible] (取引高 一二二〇枚)

株式 保合이나 底堅

商況 (四日)

前場保合 今前場은 東新百三十九圓丁으로十錢低 日産七十六圓九十錢으로三十錢高 朝取八十一圓五十錢으로不變이며 鐘新百七十九圓七十錢으로不變 大新六十八圓八十錢으로 十錢高 四十錢低等에各其寄付하엿는데 市勢는아직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日本데젤 [illegible] ▲鋼管二新 [illegible] ▲도레치鑛業 [illegible] ▲全羅鑛業新 [illegible] ▲大同産業 [illegible] ▲義州鑛山 [illegible] ▲東邦電力新 [illegible] ▲日滿아르미新 [illegible]

後場不變 後場도 不變인 保合으로 東新百三十八圓八十錢 日産七十七圓丁、鐘新百七十九圓 九十錢에 各各大引되엇다

雜株도動機待

雜株는 一律的市勢는되지못하고 株式自體의 特殊事情에 따라 區區的商狀을 呈하고잇는바 요지음 아직도 紡績株、人絹株에는 買氣가 潛在햇스며 軍需工業統制說로 惡化햇든 軍需株도 回復氣味를 보이기는하나 大體로 步調는 鈍重하다 即雜株는 過去에잇서서 모든好材料를 織込하야 買進되어 그價格도 相當한 價位에 達하엿스므로 上伸할만한 材料가업서서 停頓狀態에잇슬수밧게업게되는것이勢이나 買氣萎縮과同時에 相當히買進한 痕跡이잇스므로 어떤動機만잇스면 또한번 買進될것이아닌가 東新이 軟材에 抵抗力이 생긴것도 아울러 一考될일이다

積極性이缺乏

海外市場은 今朝에도 好調를 傳하고 對外關係도 日獨、日伊協定에 이어서 列國과의 修交로 調整될것으로 樂觀하고 日鮮漁業條約도 近近 正式調印될것이라說도잇서 幾分人氣도 明朗化하엿스며 一時金融緩和工作으로 漸次樂觀하게되어 玉整理가終了되는 東株만은 百三十八九圓臺에서 擁之不動의 姿勢로保合을 繼續할뿐이다 이오래保合은 終乃는 分岐를하고 말것이겟지만 現在의場面은 上下分岐를 問題삼을때가아니라 오히려이擁之不動하는까닭이 어데잇는냐가 問題이다 或은玉整理라하고或은低價根據이라고하는等 意見은 區區하나 大體로二、二六事件以來材料만잇스면 買進해온 市勢이니만치 이제는買疲勞狀態에 이른것이事實인데 이疲勞가 만약 昂騰의步幅이 大幅이엇든들 大反動도잇슬것이다 小幅이엿스니 餘地가 疑問視되는데서 軟派도 積極行動을避하고 박그로는 弱材의 相衝으로因한 氣迷等으로해서 雙方傍觀裡에 每日不變의保合을 繼續하고잇다 要컨대 어느편이 積極性을具備코 活動하기前에는 明朗한場面을 보기가 어려울것갓다

今日財界日誌

[illegible]

期米 買上期待 反撥

前場續高 昨後場阪地二十九圓三十二錢止와共히 二十七圓四十四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九圓三十七錢인 五丁高를 擧하고 二十七圓四十五錢인 一丁高로場을 始하야 [illegible] 五十五錢까지跳返하엿다가 五十一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頑强 後場은 二十七圓五十一錢인 同價로 始한後 [illegible] 結局五十三錢에 場을止하다

政府米買替說 市勢俄然强味

新甫二月限이 發會되든後 一般底落을 示할뿐이더니 正米의依然高로 强으로 後期와如한 反落을許하지못하고連日底迷의 狀態를繼續하는바 昨日부터는 政府米五十萬石買替說이 濃厚하야 東阪兩地의 反高를報하자 當地亦二十 [illegible]

正米動向注目 畢竟軟弱乃己?

客月末當限이納會된든當日에는 渡米의不足으로 [illegible] 昂騰하는바잇섯스나 [illegible] 急落하엿고 新甫二月限의發會되면서 更一度의 軟弱를 加하야 昨日은 二十七圓九十錢까지 反落하엿다 [illegible] 市況은 不知中 期正은 無鞘의狀態를呈하고말엇다 그러나 아프로의大勢가 正米의 動向如何에依하야 左右될것은 勿論인데 昨今正米의 事情을 綜合하여보면 時期가時期인만치 産地의出廻가 漸增하는터로서 [illegible] 日本內地의 買注文이 업음으로 自然在庫만增加되는 [illegible] 그러한 點으로보아서 早晩間 一落을 告하게될것으로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强含 [illegible]

仁川少高 [illegible]

釜山氣崩 [illegible]

大邱底堅 [illegible]

群山强調 [illegible]

木浦昂進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堂島前場堅調

【大阪電話】新規材料가적어 [illegible]

金融 (四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油冲價 [illegible]

◆豆粕冲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外砂糖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株式 (四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四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玄米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康益夏商店 京城 米 株 仁川 金益證券

期米 大 仁川 마루다이 트리히키텐

全北朝鮮紙 特産物 品質優良 廉價多賣 指定販賣元 一手販賣 朝鮮紙業 全州

期米 玉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期米 福 [illegible] 商店